

데이터 창업의 신(神)과 함께

데이터 창업의 신(神)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5년의
이야기

 행정안전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원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41068) 053-230-1114

제주글로벌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63568) 064-909-3114

www.data.go.kr

비매품/무료



9 788984 833470
ISBN 978-89-8483-347-0

데이터 창업의 신(神)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5년의
이야기

Contents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0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006
02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소개 및 추진경과	008

1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 사업화 사례

CHAPTER. 1		
차근차근 성장해온 창업의 신(神)과 함께	01 지속가능발전소 02 빈닷컴 (←정철우(개인)) 03 리반 04 레드테이블 05 와그트래블 06 텐핑거스 07 포인핸드 08 엔엑스테크놀로지 09 쿠팡	014 024 034 044 054 064 074 084 094
CHAPTER. 2		
재도전 이론 창업의 신(神)과 함께	01 데이터킹 (←워크툰) 02 투비엑스 03 집토스 (←CRC)	106 116 126
CHAPTER. 3		
아이디어를 사업화 이론 창업의 신(神)과 함께	01 카탈로닉스 02 마크인포 (←곤브랜즈) 03 유에스브이알	138 148 158

2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작

01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3년)	170
02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4년)	172
03 제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5년)	175
04 제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6년)	177
05 제5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7년)	179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0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예) 날씨정보(기상청), 교통정보(국토교통부) 등

그 간의 추진 경과



2013

-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 시행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발족
- 제1차('14~'16)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개설·운영



2014

-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최초 제정
-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2015

- 제1차('15~'16)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 2015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 제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 2015 민관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추진



2016

- 오픈스퀘어-D 개소·운영(서울)
-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 2016 ODB 공공데이터 평가 5위
- 제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2017

- 오픈스퀘어-D 개소·운영(부산)
- 오픈데이터포럼 출범
- 2017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 2017 ODB 공공데이터 평가 4위
- 제2차('17~'19)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 2017 민관 창업 콜라보(Collabo) 프로젝트 추진
- 제5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통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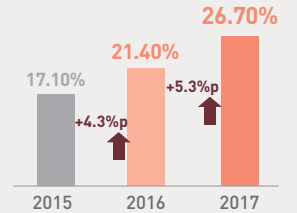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및 공공데이터 매출 기여도



고용확대 545개사
8,655명 고용(~'17년)
(평균 15.9명)



신규채용 679개사
2,395명 채용 예정('18년)
(평균 1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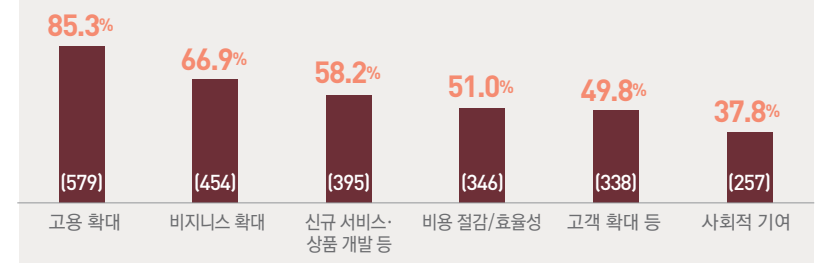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성과]

[공공데이터 매출 기여도]

공공데이터 활용 주요 성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679개사 - 성과 분야 모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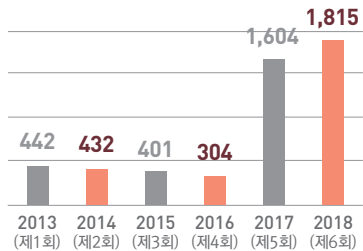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2017)]

02.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소개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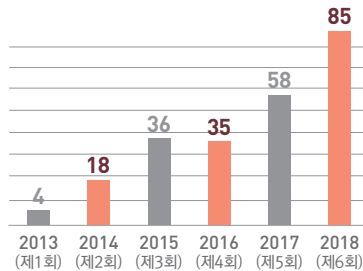
2013년 시작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데이터 기반 4차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도별 총 신청 건 수



연도별 참여기관 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 사업화



사례

CHAPTER. 1

차근 차근 성장해온 창업의 신(神)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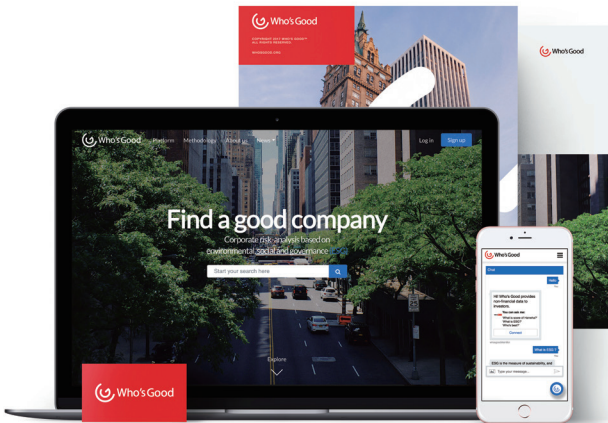
01. 지속가능발전소 014 | 02. 빈닷컴 024 | 03. 리반 034
04. 레드테이블 044 | 05. 와그트래블 054 | 06. 텐핑거스 064
07. 포인핸드 074 | 08. 엔엑스테크놀로지 084 | 09. 쿠팡 094

후즈굿이
착한 기업 찾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든다!



01

AI 기반 기업 비재무(ESG) 정보 분석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후즈굿(Who's good)

후즈굿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 비재무 정보를 인공지능(AI) 로봇 애널리스트가 분석해 리포트를 제공한다. 수년간 발생한 기업의 사건사고 뉴스를 분석한 평판(R) 리스크 정보를 추가, 기업의 리스크와 성과, 지속가능성을 알려준다.

회 사 명	지속가능발전소(주)	전화번호	02-2132-8133
주 소	인천시 남구 석정로 229 (JST) 7-3호 미국 법인 : 1952 Gallows Road Suite 303-B, Vienna, VA 22182		
대표자명	윤 덕 찬	홈페이지	www.whosgood.org
설립 연도	2014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3명 현재 12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환경부 기업 환경 데이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배출 데이터, 산업부 온실가스 데이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 데이터 등 공공기관 40여 종 공공데이터 활용

#Story1. 창업

2014년 4월 유럽연합(EU) 의회는 환경과 ‘대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지표는 재무 정보에 집중돼 환경·인권·부패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한 지속가능발전소(주) 윤덕찬 소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비재무 정보에 주목했다. 대기업 환경연구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해 기업 비재무 리스크를 분석했던 경험을 살려, 창업 아이템으로 삼았다.



실체 없는 비재무 정보 분석은 어떻게?

윤 소장을 포함한 기업 비재무 리스크 분야 컨설턴트 출신 3인은 2013년 10월 기술 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수치화 된 재무 정보와 달리, 실체 없는 비재무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했다. 각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 문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로 접근했다.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리포트 ‘후즈굿(Who's good)’**의 탄생 비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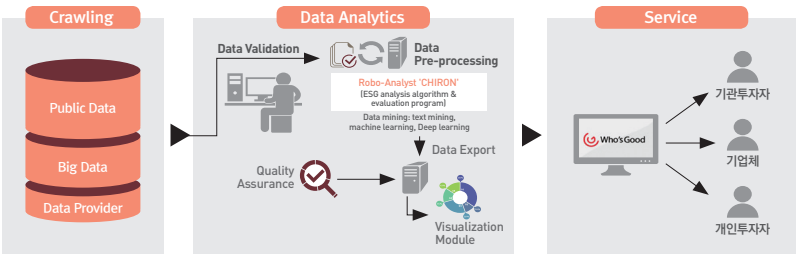
“

비재무 정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지표이자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비재무 정보 분석으로 투자자-소비자-기업의 변화를 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

#Story2. 비즈니스 모델

지속가능발전소(주)는 인공지능 기반 분류·분석·평가, 시각화, 리포팅까지 자동화하는 로보 애널리스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빅데이터-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크롤링 기술을 활용해, 기업 비재무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창업 이후 3년간 개발 기간을 거쳤고, 2016년 10월 마침내 후즈굿 베타서비스를 론칭했다.



후즈굿, 기업의 어떤 지표에 주목할까?

비재무(ESG) 분석 리포트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미세 먼지 배출량 등 기업의 **환경(E)** 정보가 담겨 있다. **사회(S)** 정보는 직원 평균 연봉, 비정규직 고용률, 매출액 대비 기부금도 알 수 있다. **지배구조(G)** 정보는 사외이사 비율, 최대 주주 지분율, 사내 등기임원 평균 보수 등의 지표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의 ESG 정보는 연간 변화를 그래프와 표로 제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 기업 관련 뉴스 데이터에서 사건·사고를 모아 비재무 리스크를 분석한 **평판(R)** 정보도 추가한 것이다.

뉴스 데이터도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킵니다. 예를 들어 재무 성과가 좋은 기업인데, 뉴스 데이터를 통해 최근 몇 년간 화학 사고를 발견했습니다. 기업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겠지만, 뉴스 데이터에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추출해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향후 잠재적 사고 가능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죠.

#Story3. 성장 과정

지속가능발전소(주)의 후즈굿 리포트는 2016년 베타버전 런칭 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현재 상세 리포트를 통해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에게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네이버 금융’에 비재무 정보를 제공해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검색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기술력은 기업들의 투명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했을 때 빛을 발한다.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후즈굿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공공데이터로 눈을 돌렸다. **14개 공공기관 40여 종 공공데이터(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업별 지분현황, 탈세 건수, 화학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정보, 남녀 고용 비율, 비정규직 고용 데이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정보 등)는 비재무 분석 리포트 완성에 힘을 실었다**. 또,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 뉴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다. 현재 전국 90여 개 언론사 뉴스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리포트를 제공한다.

후즈굿 서비스는 수익구조와 직결됩니다. 누구나 1,700여 개 기업의 요약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이 중 700여 개 기업은 상세 리포트를 제공해 월정액제로 열람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Connect4Climate, UN PRI, FACTSET, ESRI, 일본 Tsunagiba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 중입니다.

#Story4. 도약

지속가능발전소(주)는 인공지능 로보 애널리스트를 활용해 ESG를 분석하는 전 세계 4개 회사 중 하나이며, 유일한 아시아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네이버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ESG 정보 누적 이용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증권사(한화증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ESG 정보를 제공 중이다.(2018년 1월 기준)

2014년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에서 장려상(창업진흥원장상)을 받은 후, 美경제사절단으로 뉴욕에 소개된 바 있다. 이후 해외 애널리스트 대상 베타테스팅, 세계은행 Connect4Climate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룩셈부르크 Pitch Your Startup Top 10 선정 등 해외에서 주목하는 스타트업으로 우뚝 섰다.

✦ AI 기반 ESG 플랫폼을 향한 도약

지속가능발전소(주)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만큼 AI 기반 ESG 플랫폼을 지향한다.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채권, 주식, 보험, 신용등급, 은행대출, 인적자원관리, 위험관리, 지속가능한 경영 등 여러 분야에 접목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기업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중국기업 서비스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지속가능한 스타트업이 되려면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핫하다’는 이유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목표와 비전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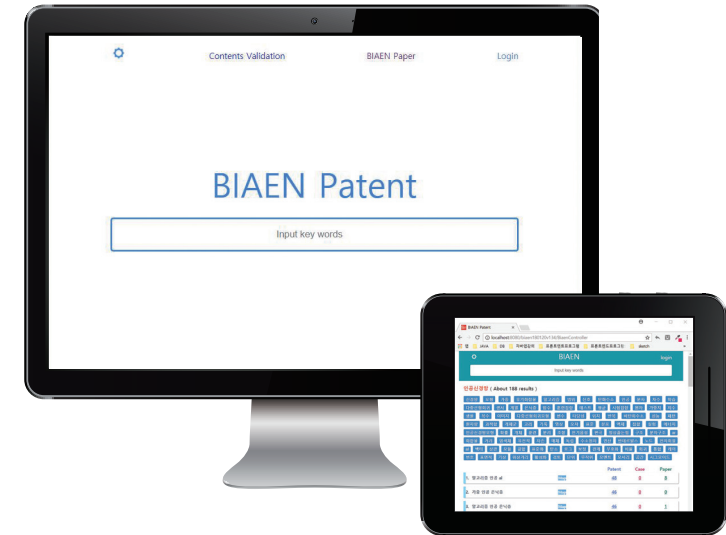
윤덕찬 소장

BIAEN Law & Patent
Bigdata A.I. Engine

빈BIAEN
플랫폼으로
어려운 특허·논문
쉽게 찾는다!

02

인공지능 기반 원천기술로
세계 최초 논문·특허 융합 분석
플랫폼 구축



빈닷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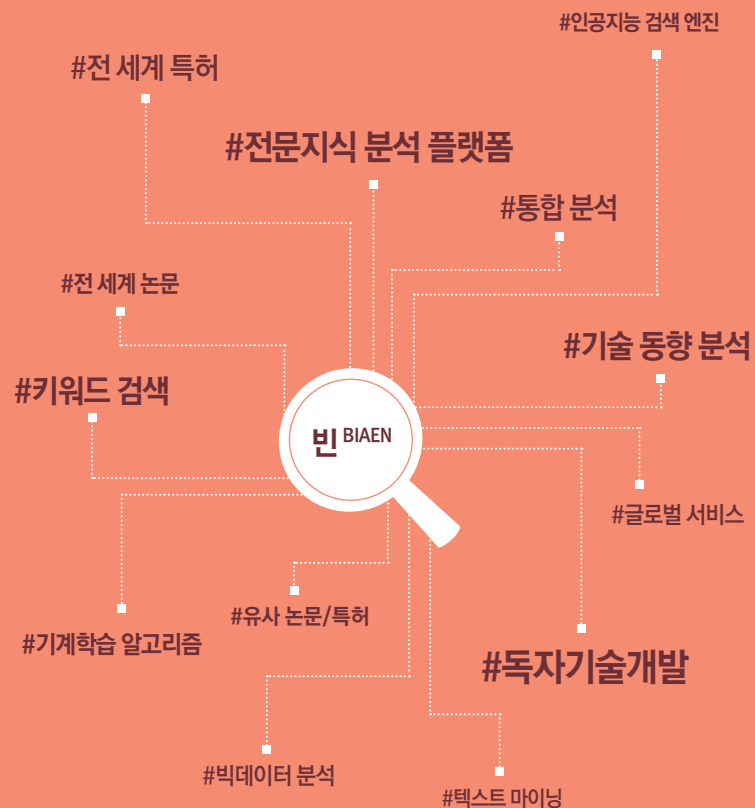
빈닷컴㈜의 특허·논문 검색 플랫폼 ‘빈(BIAEN)’은 기계학습(ML), 텍스트마이닝(TM), 복잡계 네트워크(CN) 기반 알고리즘 분석 기술로 탄생했다. 최소 단어만 입력하면 연관된 자동 키워드가 생성돼 검색이 손쉽다. 클릭 한 번으로 유사 특허·논문, 동향 분석 등을 간편하게 얻을 수도 있다.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다방면에 적용 가능한 ‘전문지식 분석 플랫폼’을 지향한다.

회 사 명	빈닷컴㈜	전화번호	010-3094-4555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90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대표자명	정 철 우	홈페이지	www.biaen.com
설립 연도	2016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1명
			현재 3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특허청 'IP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대상 수상으로 특허 DB 지원 받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해 논문 DB 제공 받음.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등록정보 데이터', 한국특허정보원 '국내외 특허 데이터' 활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센터의 공개 판례 정보 수집.



#Story1. 창업

창업 전 연구원 및 정책기관에서 근무했던 빈닷컴㈜ 정철우 대표는 지식재산과 논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와 정책 결정에 손쉽게 활용할 방법에 주목했다. 기계학습, 텍스트마이닝, 복잡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열정을 쏟아 부었고, 이를 특허와 논문 분야에 접목한 것이다.

2015년 특허청 ‘IP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특허 DB를 지원받으면서 창업과 연결시킬 방법을 모색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지원해 장려상을 받으면서, 빈닷컴㈜의 창업 아이템도 날개를 달게 됐다.



이론을 실현할 비장의 무기는 원천 기술

1인 기업으로 첫 발을 내딛은 빈닷컴㈜은 ‘원천 기술’이 최고의 성장 무기였다. 기존의 특허 검색은 특허 관련 전문가들조차 선행조사나 소송자료를 찾기 어려워, 일반인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정철우 대표는 박사과정 시절부터 연구하고 있던 텍스트마이닝과 복잡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오랜 연구 끝에 빅데이터처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순수 독자 기술로 구현했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쉬운 특허 검색 서비스를 완성하고 논문 정보와 융합하는 과거를 이루어낸 것이다.

“

단어만 입력하면 관련 키워드가 자동으로 뜨고,
각 단어만 클릭하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특허와 논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키워드를 검색 후 수백, 수천 개의 불필요한 자료가 동시에 떴지만,
‘빈(BIAEN)’은 단 몇 분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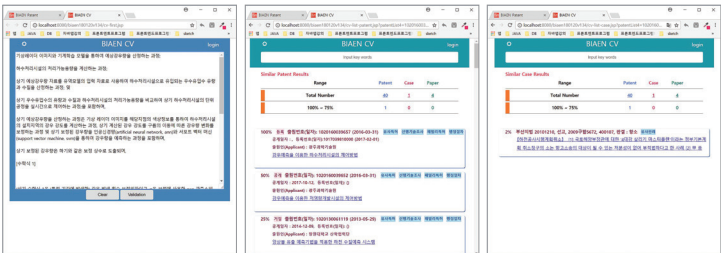
#Story2. 비즈니스 모델

2018년 하반기 첫 선을 보이게 될 ‘빈(BIAEN)’은 직관적인 UI/UX를 사용해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고민할 필요 없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기만 하면, 나머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아서 검색해준다.

빈(BIAEN) 검색, 어디까지 가능한가?

‘빈(BIAEN)’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검색 기능을 뛰어넘는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치통’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특허·논문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장 연관성이 깊은 50여 개의 자동 키워드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전문적인 약물명이나 의료명을 알지 못해도 제안된 키워드 클릭만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허출원서, 논문, 뉴스 등 각종 자료의 내용 전체를 입력해 자동으로 유사한 논문과 특허를 찾아주는 기능은 논문과 특허의 활용도를 한층 높여준다. 또한 원본특허·논문과 유사특허·논문(유사도 %로 제공) 비교는 물론, 선행기술조사, 행정절차 등 항목별 세부내용도 볼 수 있다.

단순히 특허·논문 검색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접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제약회사나 약·의학적 자료 검색도 가능하니까요. 쉬운 검색 분석 엔진에서 ‘전문지식 분석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CV 첫화면

관련특허 유사도

관련논문 유사도

#Story3. 성장 과정

이론적 연구를 창업 아이템으로 현실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3년. 무형에서 유형으로 선보이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최소 인원만으로 기존에 없던 검색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철우 대표는 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직접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수한 팀원 단 두 명만 영입해 내실을 기했다.

자동화 기술 구축, 공공데이터를 무한 활용하다

빈닷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회사다. 개발 기간이 다소 길었지만 자동화 기술을 구축한 덕분에, 개발 3년 차에 접어드는 2018년 9월 특허청 국제 특허 컨퍼런스에서 베타버전을 세상에 선보이게 됐다. 인공지능 기반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창업 보육과 자금이 필요하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제도’를 통해 특허 DB를 지원받고, KISTI로부터 논문 DB를 제공 받아 빈(BIAEN)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창업지원 및 보육을 제공받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현재 서버를 구축하고 있고, 세부적인 모니터링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빈(BIAEN)’이 웹과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멀티 플랫폼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Story4.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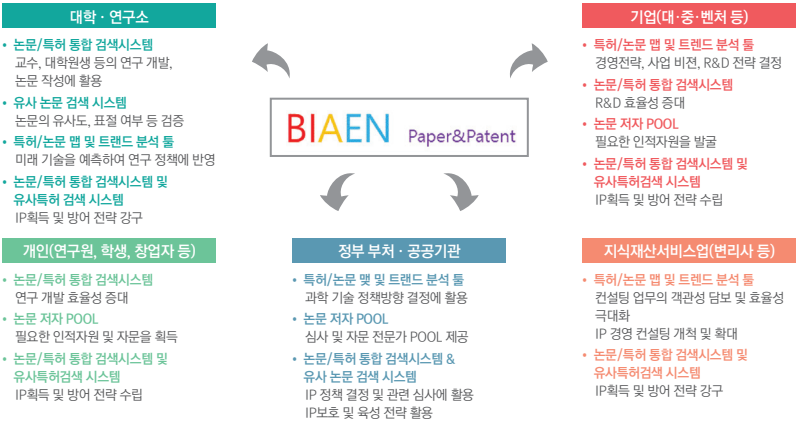
빈닷컴(주)은 베타 서비스 후 논문·특허 융합 분석 플랫폼으로서 총 3단계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첫째, **정부·공공기관·대학(B2G)이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다. 논문·특허 트렌드를 분석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용이하게 과학기술 전문가 POOL을 확보한다. 지식재산(IP) 정책 결정과 심사·보호·육성도 탄력을 받게 된다.

둘째, **대·중·소·벤처기업 등 기업(B2B)이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다. 경영 전략이나 사업 비전 수립, R&D 전략 수립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어, 인적자원 발굴, 지적재산(IP) 보호·방어가 용이해진다.

셋째, **연구자·학생·교수·변호사·변리사 등 개인 수요자(B2C)가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다. 비 전문가들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논문·특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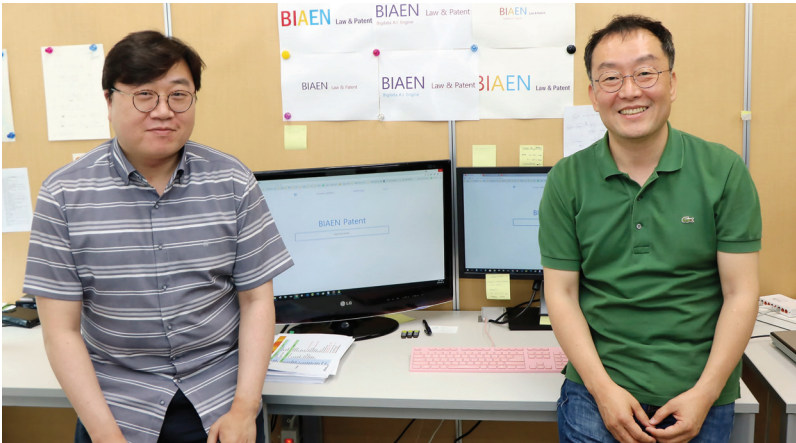
기술력과 다국어 서비스로 글로벌 진출 본격화

‘빈(BIAEN)’은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영문 분석 엔진 개발과 영문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만큼, 현지화할 필요 없이 표준화된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다. 글로벌 웹(WEB)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앱(APP) 서비스도 론칭 추진 중이며, 코트라(KOTRA) 등 국내 기관과 협력하고 해외 법무법인과 제휴해 시장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검색 플랫폼 ‘빈(BIAEN)’으로 우뚝 설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먼저, 추구하려는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뒤 창업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또, 대표 본인이 반드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금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스타트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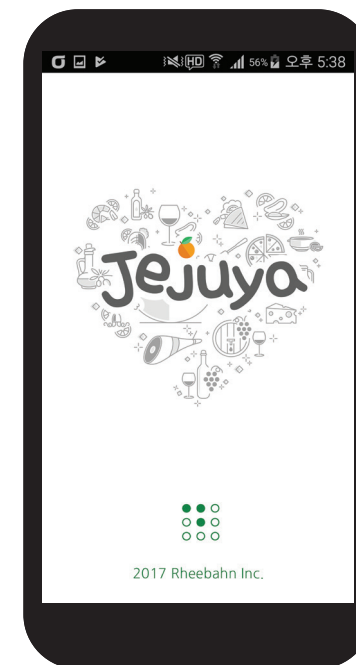




**‘제주야’로
적립·쿠폰·발행
손쉽게!
교육출결 인증
자동화!**

03

암호화 QR코드와 실내위치추위를
결합한 출입인증 개발



리반 주식회사

리반주식회사는 ‘다음세대에 이로운 기술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으로 올해 초 법인 회사로 전환, QR코드 복제방지 기반 ‘제주야(JEJU YA)’와 위치인지기술 기반 무인 교육출결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 사 명	리반주식회사	전화번호	070-8200-6500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진흥원 603호		
대표자명	이 철 규	홈페이지	www.rheebahn.com/qrpaper/en
설립 연도	2016.01 개인사업자 등록	종사자수	창업당시 1명
	2018.01 법인 전환		현재 5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특허 기반의 'QR코드 복제방지기술'을 활용해 제주도 내 소상공인의 고객관리를 위한 리워드제공 형태의 서비스 '제주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제주도 일반·휴게 음식점 현황(1만 7천여 건, 업종·인허가 일자·업태명 등) 공공데이터와 제주도 스마트 관광 서비스 플랫폼 비콘 정보 활용

#Story1. 창업

리반 주식회사 이철규 대표는 20여 년간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예약·결제 시스템 등의 클라이언트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해온 경력자이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기술을 통해 인간을 이롭게 하고, 상호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1인 기업을 설립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일무이한 원천기술 확보였다. 그 결실로 2017년 1월 QR코드 복제방지 기술 및 데이터 송수신 난독화 기법을 특허 등록하고, 2017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기술 적용할 아이템 모색, 창업경진대회로 눈 돌리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특허를 보유한 'QR코드 복제방지기술'을 실제로 적용해볼 좋은 기회였다. 그 첫 번째가 2017년 7월 '제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였다. 제주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리워드형 서비스 '제주야'로, 회원가입 없이 'QR코드 복제방지기술'을 이용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서비스로 대상을 차지한 것이다. 그해 10월 장려상을 받은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기점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며 성장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

'QR코드 복제방지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지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주도 특화서비스로 소상공인의 고객관리 서비스 '제주야'에 적용해봤습니다. 개인정보없이 매장에서 고객관리를 한다는 점, 약정/가맹 등의 계약이 전혀 없고 비용이 거의 무료라는 점이 기존 서비스들과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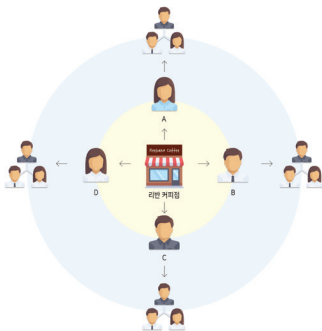
#Story2. 비즈니스 모델

리반은 지난해 테스트 버전에 이어, 올 하반기 소상공인 고객관리 서비스인 ‘제주야’를 론칭한다. ‘제주야’는 **쿠폰 발행과 스탬프 적립이 쉽고, 고객관리가 용이하며**, 발행·적립 시 개인 정보 입력이 필요 없어 소비자도 편리하다.

둘째, **소상공인의 고객관리 비용이 거의 무료다**. 기존의 고객관리 서비스는 최소 월 만 원 이상의 비용에 알림·공지 문자 발송 시 별도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제주야’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고객 알림·공지 관리는 최대 월 5,000원으로 저렴하다**.

셋째, ‘제주야’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잠재 고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매장에서 직접 스탬프를 적립하는 소비자(1차 고객)가 ‘제주야’ 앱으로 스탬프를 적립하여 받은 리워드를 지인(2차 고객)에게 전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소상공인은 훨씬 더 많은 수의 2차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하 그림 참조)

리워드 전달을 통한
신규고객의 무한대 확장



+
위치인지 기술 기반 서비스 확장

리반의 이철규 대표는 2017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7기)를 통해 QR코드 복제방지기술을 고도화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 담당 실무자들과 답소를 나누던 중 **‘QR코드 복제방지기술’과 ‘위치인지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다**.

“
위치인지기술 기반 출입인증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 결합된 형태이어서 쉽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의 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기존의 교육 출결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Story3. 성장 과정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1인 기업 특성상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인 일들이 산재해 있었다. 모든 스타트업이 ‘자금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철규 대표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팀 빌딩 없이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
믿고 함께 갈 팀원 위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 인증 작업

단순한 구인이 아니라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팀원이 절실했던 만큼, 리반의 비전과 확실한 목표,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증 작업에 쏟아 부었다. 2017년 11월 **벤처기업 등록**에 이어, 벤처창업 진흥유공 중소기업 장관 표창으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8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한 뒤, 2월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3월에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 자격 등을 확보**했다. 게다가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추가과정)로 선정**되면서 실내위치측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난 4월과 6월 리반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우수한 팀원 두 명이 합류했습니다. 앱 기반 규알 페이퍼와 연동할 수 있는 기기 출시 등, 사업을 구체화할 모든 준비를 마친 셈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었기에 함께 갈 인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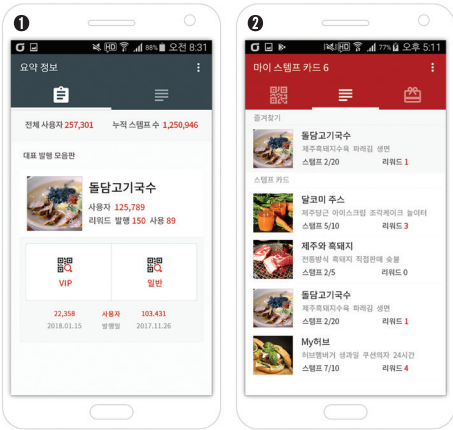
#Story4. 도약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 비즈니스 확장 기반을 마련한 리반은 2018년을 성장 원년의 해로 삼았다. 제주야 상용화를 시작으로, ‘QR코드 복제방제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과 ‘실내위치측위 기술개발’을 마무리하고 2019년 교육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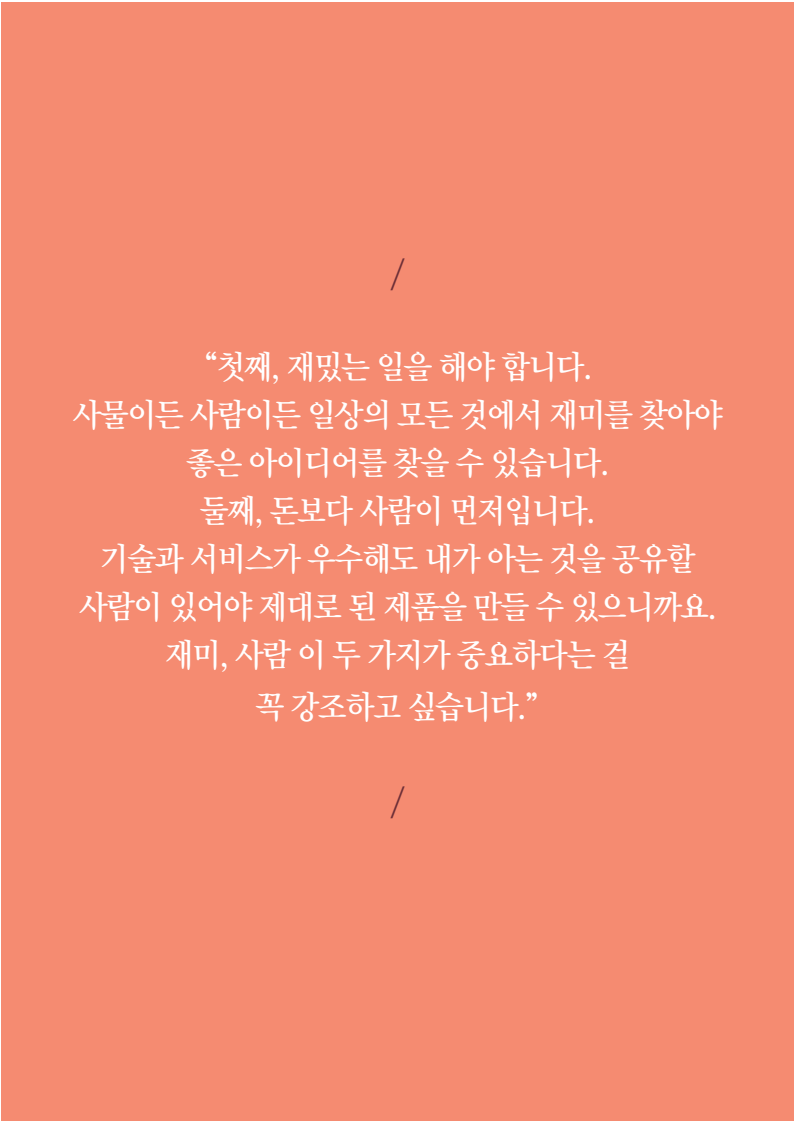
서비스 출시 및 ‘실내위치측위 시스템’ 베타버전 첫선

‘QR코드 복제방제기술’을 활용한 ‘제주야’ 서비스는 2018년 하반기에 출시된다. 제주도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한 스탬프 적립 및 고객관리 서비스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역 특화 서비스인 만큼 점진적으로 교통-음식-숙박-액티비티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이미 개발에 착수한 위치인지기술 기반 ‘실내위치측위 시스템’은 올 하반기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필드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위탁 교육기관은 물론, 기업연수원, 학교·회사·학원 등 인증이 필요한 여러 교육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 ① ‘제주야’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돌담고기국수’ 사장님 모바일 화면 고객 군을 구분하여 관리 가능함.
- ② ‘제주야’를 이용하는 개인 App 화면 여러 매장에서 모은 스탬프가 한 눈에 보임.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첫째, 재밌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재미를 찾아야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술과 서비스가 우수해도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할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재미, 사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레스토랑 추천·결제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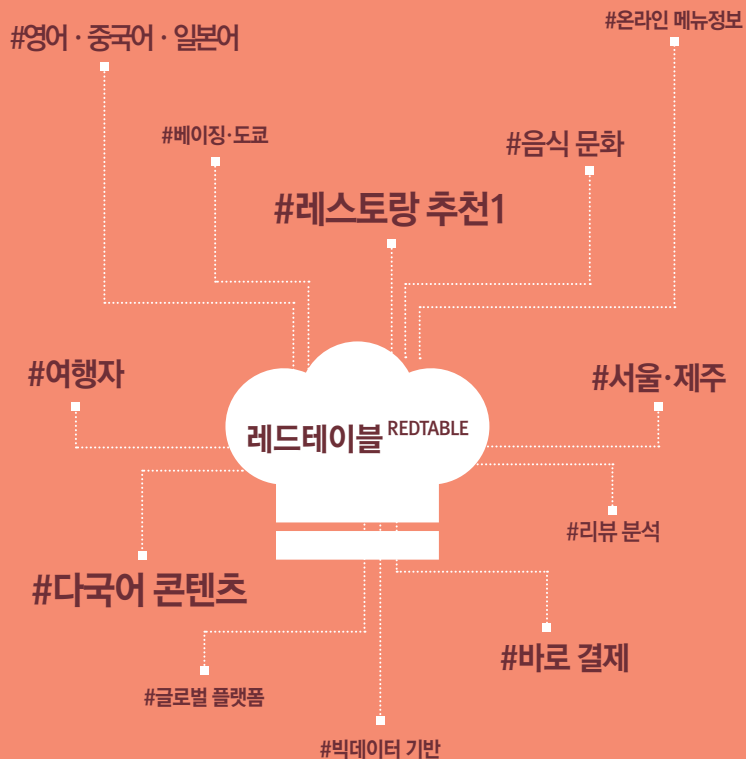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레스토랑
마케팅 플랫폼



레드테이블(주)

레드테이블(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레스토랑을 추천하고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메뉴판 제공 및 결제까지 연동한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이다. 서울과 제주는 결제 서비스를, 베이징과 도쿄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 사 명	레드테이블(주)	전화번호	031-5171-5670~1
주 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3동 410호		
대표자명	도 해 용	홈페이지	www.redtable.global
설립 연도	2011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1명
			현재 9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레드테이블은 음식을 매개체로 여행자가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국어 레스토랑 데이터(한국관광공사), 다국어 메뉴 데이터(한식진흥원)를 활용해 매장에서 실제 판매하는 메뉴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Story1. 창업

때는 바야흐로 2011년,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플랫폼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았던 레드테이블(주) 도해용 대표는 빅데이터와 외식산업을 결합한 창업 아이템을 구상했다.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어머니를 지켜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 창업 계기로 이어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외식 산업은 매우 큰 시장이지만, 다른 분야보다 정보화 시스템이 뒤쳐져 있는 분야이다. 도해용 대표는 이점에 착안해 외식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모바일 서비스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외식산업 빅데이터 분석, 랭킹 알고리즘 개발

외식경영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도해용 대표는 2011년 특허받은 자체 랭킹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해 2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 석·박사 출신과 함께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좀 더 쉽게 현지 맛집을 찾을 방법’을 모색했다.

먼저,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

기존에 있던 음식점 평가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소셜에서 사용자가 이전에 남긴 리뷰나 활동 빈도, 주요 활동 지역 등을 분석해 그 리뷰가 얼마나 믿을만한 정보인지 분석하는 것이죠. 레드테이블의 랭킹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

#Story2. 비즈니스 모델

‘레드테이블(REDTABLE)’은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레스토랑 마케팅 플랫폼이다. 여행자가 현지 맛집의 정보를 얻고 주문과 동시에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일본어 등 다국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다.



세계 13개 도시, 현지인이 작성한 리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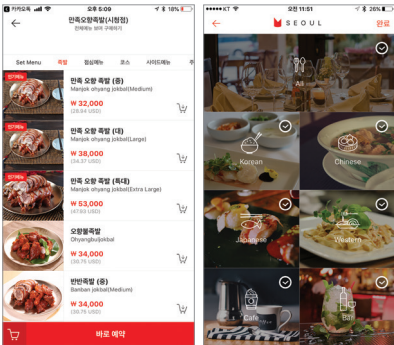
레드테이블은 현지인이 작성한 13개 도시(서울, 제주,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충칭, 홍콩, 타이페이,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 호치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레스토랑 전문 사이트와 블로그, 관련 도서와 잡지, TV프로그램에서 빅데이터(1,029,079개 레스토랑, 36,125,102개 리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레드테이블(주)의 원천기술인 랭킹 알고리즘(REDTABLE INDEX, 특허 등록)으로 분석해 현지인에게 사랑받는 대표 레스토랑 1,000개의 랭킹을 제공한다.

“

매장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진짜 메뉴(Real menu)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 여행자가 현지 언어를 몰라도 PC와 모바일로 쉽게 주문(Easy order)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결제(Direct pay) 할 수 있습니다.

”



#Story3. 성장 과정

레드테이블(주)은 2011년 창업을 시작해 어느덧 8년차에 접어들었다. ‘스타트업은 3년을 버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업계 속설에 빗대면, 그야말로 장수하는 스타트업인 셈이다. 창업 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메뉴 표준과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2014년에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가 전환점이 됐다.



공공데이터 활용해 창업 기반 다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메뉴명과 정보’를 분류하는 표준 콘텐츠가 필요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다국어메뉴데이터를 활용, 각 매장에서 실제 판매하는 메뉴(Real menu)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할 수 있었다.**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2015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ICT분야 유망기업(K-Global300 선정)에 선정되었고, 그해 영국 ‘레스토랑다이러리’와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

사실 2017년 2월 중국의 사드 여파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고 홍콩, 대만 및 아시아권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나간 덕분에 매출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 3억 달성 이후 올해는 조금 더 약진하리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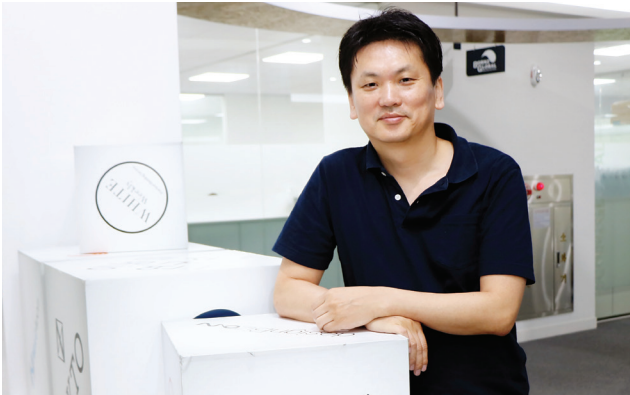
”

#Story4. 도약

레드테이블㈜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 만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관광 B2B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서비스 기업인 디엔핑, 메이트완과 여행사 시트립, 알리트립, 투뉴, 통청, 관유와 음식관광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
중국을 넘어 아시아권 기업과 계약 체결

2017년 말부터 더욱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월에는 동남아 여행사인 클룩, 케이 케이데이, 보야진과 계약을 맺으며 중국을 넘어 아시아권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또, 2018년 1월에는 한식세계화 기어 농식품부 장관 표창장 수상에 이어, 중국판 미슐랭이라고 불리는 중화권 레스토랑 가이드 ‘시트립 미식림(美食林)’의 한국 파트너가 됐다. 창업 초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 기반을 다졌던 레드테이블㈜은 이제 역으로 정부의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듯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올해 성장 가속도 페달을 힘차게 밟아나가고 있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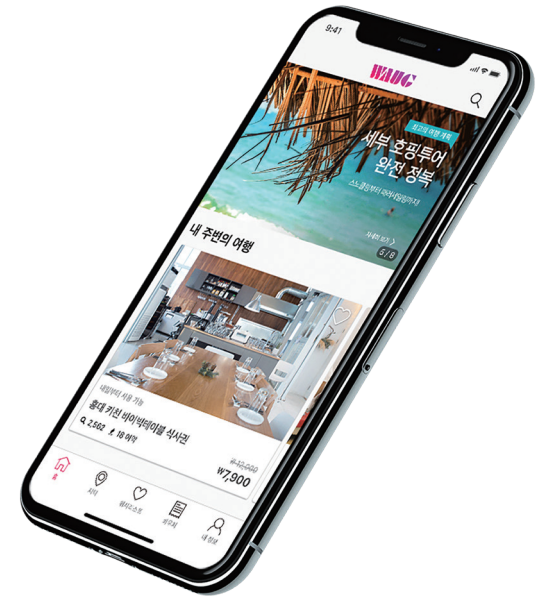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창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한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연한 희망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와그’로 전 세계 여행도시에서 즐길거리 검색·예약 결제까지!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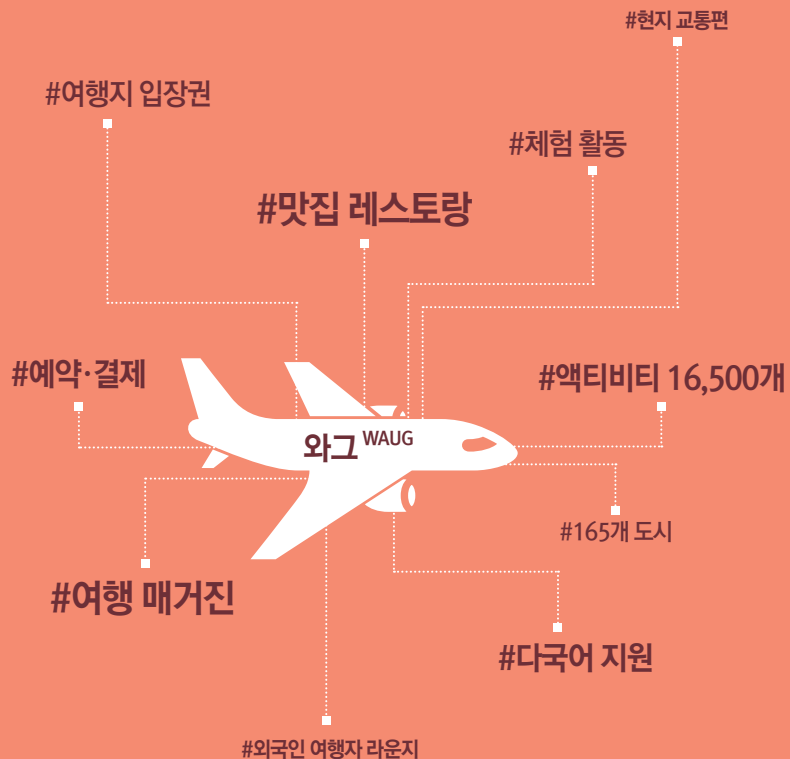
전 세계 여행 액티비티
원스톱 예약 플랫폼



와그트래블(주)

와그트래블(주)은 자유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와그’를 선보였다. 전 세계 여행 도시의 필수 여행지 입장권, 현지 교통편, 스파 등 힐링 프로그램, 현지 아트&컬처, 이색 맛집 예약까지 검색·예약·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회 사 명	와그트래블(주)	전화번호	070-4353-5959
주 소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DMC 디지털큐브 20층 일본지사 : 3F, Daiichitoei Bldg., 11-2 Kanda Mitoshirocho, Chiyoda-Ku, Tokyo, Japan		
대표자명	선 우 윤	홈페이지	www.waug.com
설립 연도	2015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2명 현재 82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한국관광공사 공공데이터인 투어 API를 활용해 다국어 서비스와 국내 관광지 콘텐츠를 활용,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현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주요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와그 앱 내 여행 매거진 서비스로 제공.

#Story1. 창업

와그트래블(주) 선우윤 대표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여행을 계획하면서 느낀 불편을 직접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행 분야에서 항공, 호텔은 거대한 OTA 플랫폼이 있지만, 현지 **여행지의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 그렇게 자연스러운 계기로 액티비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한 그는 2015년 1월 친구와 같이 창업에 뜻을 모았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으로 구축

그동안에는 현지 투어나 액티비티 영역을 PC로 예약하고, 이메일로 바우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모바일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 세계 **여행 액티비티 앱 '와그(WAUG)'**의 등장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였기에 더 주목받았다.

창업이 순조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선우윤 대표의 스타트업 근무 경험도 한몫했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어떤 과정으로 투자하는지, 초기 마케팅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등 자신의 경험을 살려 차근차근 창업 기반을 다져나갔다.

“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서 1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을 보태 1억5천만 원으로 플랫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7월 개발을 시작해, 12월에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앱은 2016년 3월(안드로이드)과 5월(IOS) 출시했습니다.

”

#Story2. 비즈니스 모델

와그(WAUG)는 현지 여행에서 필요한 모든 액티비티 활동을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액티비티 서비스다. **자유여행에서 꼭 필요한 현지 교통편과 여행 명소 입장권, 여행지의 특별한 투어까지 할인가로 예약, 결제해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이다.** 와그는 사용자가 있는 현재 위치(GPS)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액티비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액티비티 활동부터 맛집 예약까지

‘인기 여행지’를 통해 서울, 오사카, 방콕, 다낭, 파리, 세부, 도쿄, 싱가포르, 홍콩, 괌 등 여행 도시의 어트랙션&공연과 교통수단&와이파이, 투어 프로그램, 액티비티&체험, 레스토랑&다잉, 스파&라운지를 쉽게 검색하고 터치 몇 번으로 예약할 수 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 ‘인기 어트랙션’과 유럽 자유여행, 일본 미술랭 맛집 할인 예약, 전 세계 테마파크 초특가 등 ‘테마여행’, 와그 여행 매거진인 ‘여행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

올해부터 맛집 예약 서비스도 추가되었어요.
현지 맛집 탐방부터 카페&베이커리, 미술랭가이드를 포함한 전 세계 맛집을 할인가에 예약할 수 있게 되었죠.
와그에는 전 세계 165개 도시의 16,500개 액티비티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



#Story3. 성장 과정

와그트래블(주)은 2015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 그해 말 사이트 오픈과 이듬해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이며 단기간 빠른 성장을 해왔다. 창업 첫째 3,400만 원이었던 매출이 2016년 2.4억 원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50억 원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2018년 1분기에만 44억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200억 원 매출을 예상한다.** 2015년 2명이 시작한 와그트래블(주)은 2016년 18명, 2017년 32명에 이어, 2018년 7월 50명으로 늘었고, 월 120만 명이 와그 앱을 이용하고 있다.



투자 유치, 인력 보강, 서비스 확장

창업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해온 와그트래블(주)에 눈독을 들이는 투자자들도 많았다. 지금까지 누적해 135억 원을 투자받았고, 이를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 전문 인력 보강, 홍보·마케팅 등에 투자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서비스 확장은 맛집 레스토랑 예약이다. 한국의 맛집뿐 아니라 일본 미술랭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맛집 예약도 할 수 있다. 좌석 예약부터 식사권 예약,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

미술랭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의 인기메뉴코스도 있고 와그단독코스도 예약 가능합니다.
전 세계 레스토랑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레스토랑을 중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덕분에 올해 일본지사 매출이 20억 원 정도가 되리라 전망합니다.

”

#Story4. 도약

창업 만 3년을 넘긴 와그트래블(주)은 올해 4분기에 와그 앱 자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이 외 B2B 상품(쿠팡, 티몬, 위메프, 하나투어, 모두투어, 땡처리닷컴 등 40여개 여행사)으로 입장권 투어와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하고, B2B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 지원으로 도움닫기, 이제는 도약할 때

선우윤 대표는 창업 이후 ‘와그’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외적인 주목을 받은 덕분에, 투자 유치에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와그트래블(주)은 홍대역에 외국인 대상 ‘와그 트래블 라운지’를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인바운드 사업으로 확장해나간다. 또, 국내 인기 맛집 서비스를 해외에 공급하고, 일본 고객은 직접 와그를 통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전 세계 투어 & 액티비티 플랫폼’으로써 독보적인 입지를 굳힐 예정이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

“개인이나 팀이 아무리 잘해도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
창업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진입하려는 시장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지,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경쟁자가 확고하게 있는지
등을 고려해 성장 가능성을 파악한 뒤
창업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



전국 이색 데이트 장소부터 할인, 생생 리뷰까지 데이트 코스 추천 앱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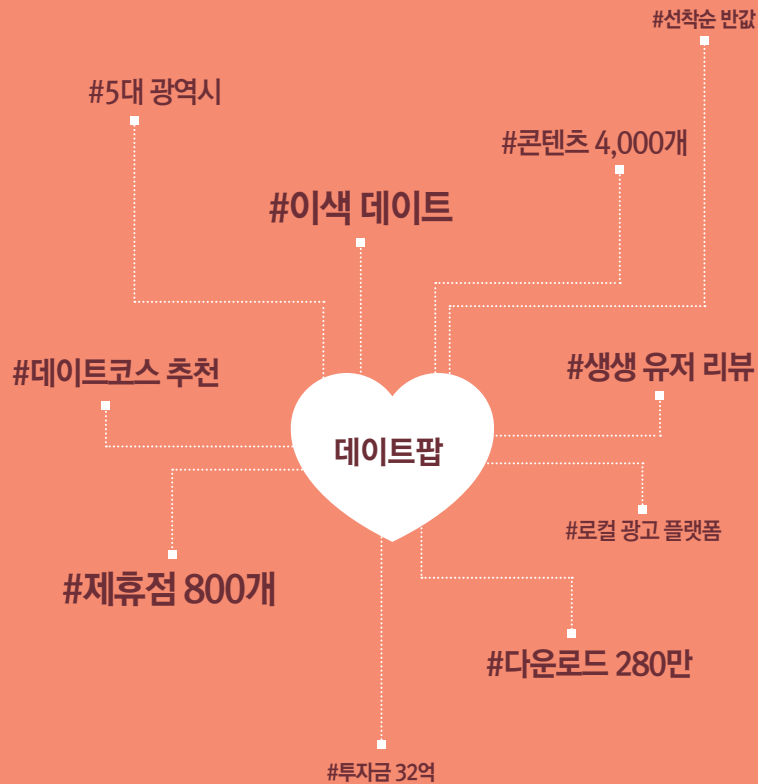
색다른 놀거리 제공하는 큐레이션 콘텐츠 및
로컬광고 플랫폼 구축



(주)텐핑거스

텐핑거스 데이트팝은 전국 5대 광역시 5,000개 이상의 이색 데이트 코스를 만날 수 있다. 280만 유저들의 생생한 리뷰와 색다른 놀거리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역 제휴점이 입점해 가게를 홍보하는 로컬광고 플랫폼이다.

회 사 명	(주)텐핑거스	전화번호	070-4410-8836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703-1호		
대표자명	신 동 해	홈페이지	www.10fingers.datepop.kr
설립 연도	2014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3명 현재 13명 (정규직 9명+인턴 4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주)텐핑거스는 한국관광공사 Tour API를 활용해 숨은 데이트 코스 추천 앱 데이트팝 개발. 한국관광공사의 지역별 관광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2030 커플들에게 이색 데이트 코스와 핫플레이스 정보 제공

#Story1. 창업

대학교 2학년이던 2011년, 창업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주)텐핑거스 신동해 대표는 지인의 추천으로 LG전자 사내 동아리 팀원들과 인연을 맺었다. 다양한 앱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뜻 맞는 사람들끼리 사업화할 아이템을 고민하게 되었다. 모두 ‘연애’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비슷한 연애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데이트 코스’ 정보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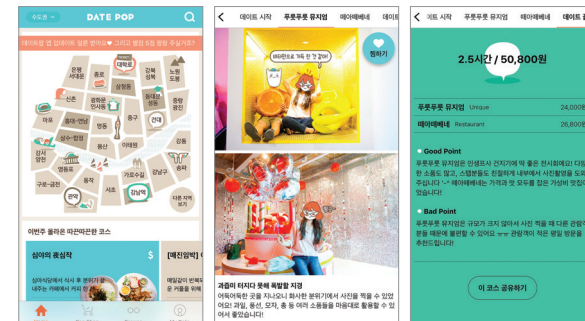
2030 겨냥한 데이트 콘텐츠에서 출발

신동해 대표는 2013년 7월 개인사업자로 텐핑거스를 설립, 그해 8월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팀원들과 함께 개발한 ‘서울데이트팝’ 안드로이드 앱 베타버전을 출시했다. ‘열 손가락 끝의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고자 모인 사람들, 감성을 만지는 기술자들’이란 뜻의 (주)텐핑거스는 데이트팝에도 이런 가치를 투영했다. **데이트보다 데이트 준비가 더 힘든 서울 2030커플들을 위해 근사한 데이트를 선사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아울러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애 웹툰까지 흥미로운 번외 콘텐츠도 담았다.

“

초기에는 서울 지역 숨은 데이트 코스와 하나의 콘셉트가 담긴 테마별 데이트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모든 코스를 직접 다녀온 후 비용, 시간, 지도, 분위기 등 데이트할 때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보여주는 실용적인 데이트 콘텐츠 생성에 주력했죠.

”



#Story2. 비즈니스 모델

㈜텐핑거스가 2013년 첫 선을 보인 ‘서울데이트팝’ 앱은 서울지역 데이트 코스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5년 차에 접어든 2018년의 ‘데이트팝’은 전국 5대 광역시 4,000여 개의 데이트 장소를 만날 수 있다. **280만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보는 방식도 풍성**해졌다. 앱 행동 패턴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주나, 상대방과의 D-day 설정으로 기념일에 맞는 장소 추천해주는 등 개인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콘텐츠와 O2O가 결합한 로컬 광고 모델 ‘팝딜’ 앱 개발 후 출시

신동해 대표는 2년간 데이트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했지만, 결국 ‘데이트는 두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영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창업 팀에서 10년 차 영업사원을 영입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표들(광고주)을 만나러 다녔다. **콘텐츠와 O2O가 결합한 로컬 광고 모델 ‘팝딜(인기 데이트 장소를 선별해 선착순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을 기획, 앱 개발 후 출시하게 되었다. **방 탈출, VR, 마사지, 커풀사진, 실내 테마파크, 외식업, 카페 등 카테고리**는 다양하며, 현재 광고주 만족도도 매우 높다.

“

데이트팝은 스토리텔링화 한 큐레이션 콘텐츠를 통해 로컬 광고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광고 모델인 팝딜로 빠르게 제휴점을 확대하고 있어요. 현재 제휴점은 800여 곳으로, 데이트 콘텐츠와 연계한 로컬광고 플랫폼 서비스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

#Story3. 성장 과정

㈜텐핑거스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다. 창업 해인 **2013년 공공데이터 개방과 맞물려 데이트 콘텐츠라는 방대한 정보를 한국관광공사 Tour API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데이트 코스 추천이라는 핵심 서비스가 공공데이터로 실현될 수 있었다.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로 앱 개발 속도 UP

창업 해에 곧바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앱 개발 부문에 참가한 ㈜텐핑거스는 ‘서울데이트팝’으로 우수상(중소기업청장상)을 받았다. **창업경진대회는 앱 개발과 서비스 안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평가받을 수 있는 통구이기도 했다.** 수상을 계기로 사업화 가능성과 공신력을 확보한 ‘서울데이트팝’은 그해 11월과 이듬해 2월 구글플레이 메인에 추천되었고, 앱 출시 7개월 만에 18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데이트앱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

‘데이트팝’은 앱 누적 다운로드 280만, 월간 방문자 122만을 넘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요구를 해결할 로컬 광고 플랫폼으로, 현재 팝딜 제휴점이 800여 곳이죠. 이 중 공방, 실내체험 등 ‘놀거리’ 관련 제휴점이 약 70% 정도 됩니다.

”



#Story4. 도약

(주)텐핑거스의 약진은 2018년에 더 두드러진다. 올해 7월 대성창업투자, 에트리홀딩스, 기존 투자자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로부터 **23억 원 투자를 유치(누적 투자액 37억 원)**했다. ‘팝달’ 제휴점은 현재 800여 곳이며, 내년까지 전국으로 넓혀 4,000곳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
놀거리에 특화된 O2O 서비스로 확장

‘데이트팝’은 영화, 식사, 카페로 이루어지는 식상한 데이트 코스를 색다르게 제안해보고자 하는 기획으로 출발했다. 앞으로는 **로컬 제휴점 확장뿐 아니라, ‘코스’ 라는 콘셉트 아래 다양한 여가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극, 공연, 페스티벌, 숙박 등을 지역별 데이트 코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장**하고 있다. 2030 커플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외에도, 10살 이하 자녀를 둔 **3040 부부들을 위한 ‘나들이 팝’**이나 인바운드 관광객을 위한 광고 상품도 계획 중이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

“비즈니스를 먼저 구상한 다음,
효율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활용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데이터라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아이디어도 비슷하겠죠.
데이터를 활용해 나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기동물 입양&실종 동물 찾기 앱으로 착한 변화 이끈다!

PawinHand

07

유기동물 정보 기반의
실시간 쌍방향 입양 플랫폼 구축



(주)포인핸드

유기동물 입양&실종동물 찾기 앱 ‘포인핸드’는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또, 주인이 없는 동물은 입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유기동물 입양 & 실종동물 찾기 플랫폼이다.

회 사 명	(주)포인핸드	전화번호	010-4727-6217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9 동원빌딩 301호		
대표자명	이 환 희	홈페이지	www.pawinhand.kr
설립 연도	2017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3명
			현재 3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포인핸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데이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조회 서비스’와 ‘동물등록 정보’를 활용해 유기동물 입양&실종동물 찾기 서비스 구축. 서비스의 모든 기능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반려동물 앱

#수의사 개발자

#철창 탈옥캠페인

#유기동물 정보

#실종동물 찾기

#유기동물 입양

#전국 보호소 조회

#구조·공고·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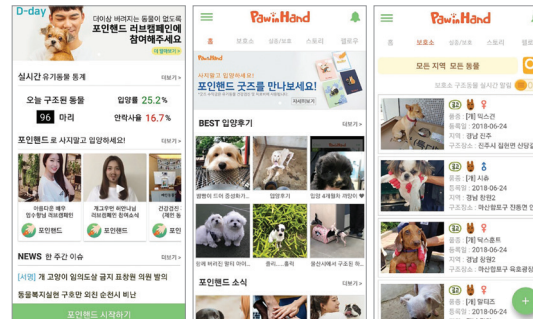
#입양후기 공유

#쌍방향 입양 플랫폼



#Story1. 창업

(※)포인핸드의 창업 연도는 2017년이지만, 포인핸드 앱 개발 시점은 201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의사 개발자인 이환희 대표가 2013년 **가평군에서 공중방역 수의사로 근무할 당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관리했던 경험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많은 유기동물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채 안락사당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변화가 필요함을 감지한 것이다.**



취미였던 앱 개발, 유기동물 입양 & 실종동물 찾기 플랫폼 구축

수의사로서의 본업과 앱 개발 취미가 있었던 이환희 대표는 **2014년 초부터 홀로 유기동물 입양 & 실종동물 찾기 플랫폼 개발에 돌입**했다. 창업이 목적이 아니라 유기동물과 안락사 문제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만큼, 아이디어와 기획·앱 개발 전 과정을 혼자서 해나갔다. 수의사이자 11살 몰티즈의 보호자이며, 수의대와 별개로 대학 시절부터 앱 개발을 취미로 하며 각종 대회 입상은 물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추진한 실력파 개발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2014년 1월 포인핸드 서비스를 시작해, 그동안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꾸준히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포인핸드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도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해 소셜벤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

#Story2. 비즈니스 모델

㈜포인핸드의 유기동물 입양 & 실종동물 찾기 앱 ‘포인핸드’는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보호소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런 유기동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

포인핸드 플랫폼으로 입양 문화 전파하는 긍정의 나비효과

포인핸드 서비스는 첫째, 보호소에 유기동물이 구조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데이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기능이다. 둘째,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실종 전단을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쉽고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이 없고 절차가 간소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효율적으로 찾는 기능이다. 셋째, 반려동물 입양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서비스 시작 후 자연스럽게 생성된 입양후기 커뮤니티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문화 전파라는 긍정의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포인핸드 플랫폼이었을 뿐 창업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용자 중심의 업데이트가 지속돼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체 수익모델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졌죠.”

#Story3. 성장 과정

포인핸드 플랫폼의 출발점이 ‘사회문제 해결’이었기에, 창업 당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멘토링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대상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상(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상) 수상 후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포인핸드 시연회 등의 기회가 생겼고, 포인핸드 서비스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수익의 순수 50%, 입양된 반려동물 건강 검진비로 지원

이환희 대표는 포인핸드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수익 구조를 모색한 끝에 ‘지역 동물병원과의 제휴’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순수료 모델을 정립했다. 수익의 순수 50%는 입양 반려동물의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으로, 현재까지 200여 건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수익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더불어, 포인핸드 유기동물 입양 장려 운동인 ‘탈옥 캠페인’도 이어나가고 있다.

“탈옥 맨투맨 티셔츠(자수는 전국 보호소의 유기동물들, 그 위에 붙여진 스티커는 유기동물들이 갇힌 철창 상징)도 그 중 하나인데요. 스티커를 제거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유기동물들이 보호소 철창을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Story4. 도약

포인핸드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57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반려동물 카테고리에서 손꼽히는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법인 설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창업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해 올해 매출 2억 원을 전망한다**. 이환희 대표는 ‘포인핸드는 사람과 동물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사회 변화의 중심, 입양 후 이야기를 공유하는 문화 확산

포인핸드 플랫폼은 단순히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앱이 아니다. **‘유기동물 입양 후 죽을 때까지 책임감 있게 키운다’ 는 인식 확산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입양자와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해 올해 연말 ‘유기견 사진전’도 연다. 포인핸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변함없이 잘 지켜나가겠다는 이 대표의 다짐은, 사회 변화를 꾀하는 (주)포인핸드의 착한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우리 생활 속의 불편함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사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발전시켜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수익모델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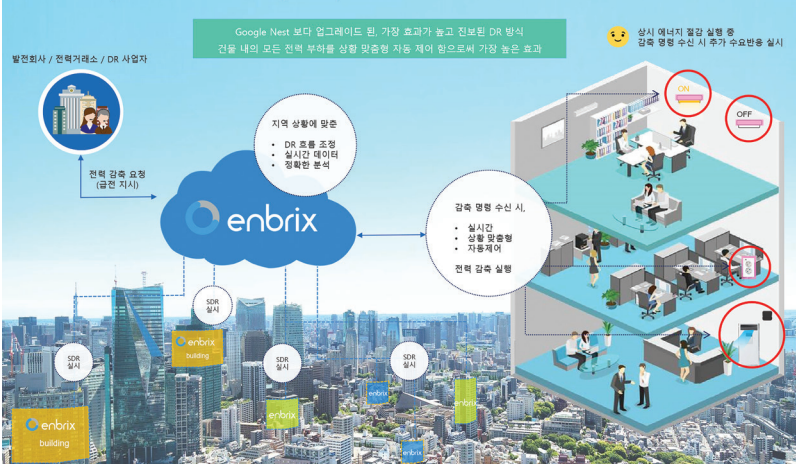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ESS로 에너지 생산한다!



08

AI와 IoT 기반 융·화합형 전력 절감
에너지 관리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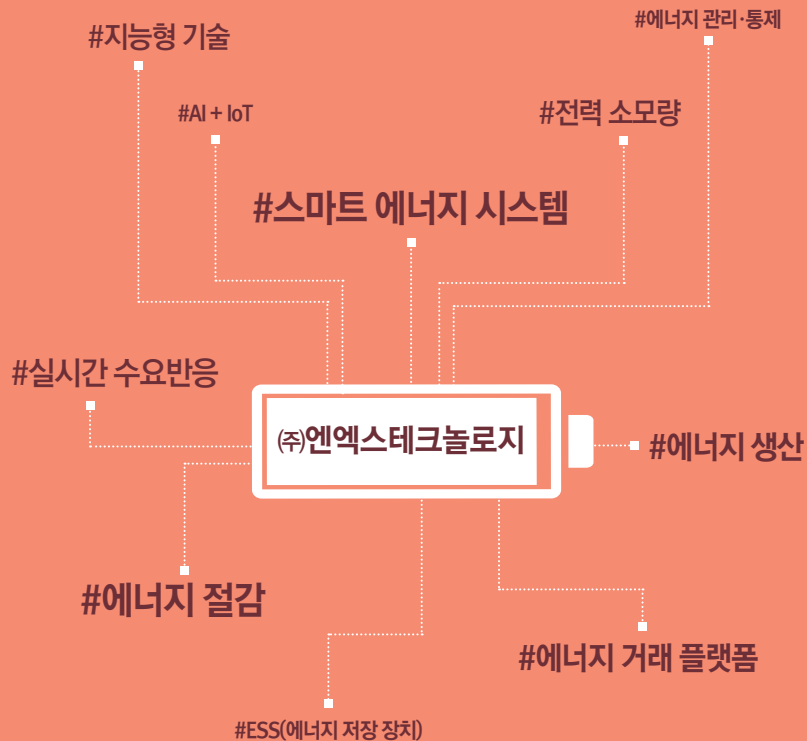
NX의SDR (Smart Demand Response)



(주)엔엑스테크놀로지

(주)엔엑스테크놀로지(NX Technologies)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화합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엔브릭스플’ 개발했다. 시설물(공장·빌딩·매장·집 등) 내 온·오프라인 실시간 전력 소모량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를 절감한다.

회 사 명	(주)엔엑스테크놀로지	전화번호	052-222-4560
주 소	본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2길 57 OS빌딩 5층 지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 누리꿈스퀘어 1102-2호		
대표자명	남 주 현	홈페이지	http://nxtcorp.co.kr/kr
설립 연도	2014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3명 현재 18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정보, 기상청의 기상특보 정보,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정보, 한국환경공단 환경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 건물 내 전력 소모량을 실시간 관리·통제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플랫폼 구축

#Story1. 창업

IT 분야 엔지니어였던 ㈜엔엑스테크놀로지 남주현 대표는 10년, 15년 후의 비전을 수립했다.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큰 틀에서 건물 안 기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 것이다. 남 대표는 이미 미래의 창업 아이템을 확정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 습득과 관련 분야 경력을 쌓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 기나긴 시간이었지만 남 대표에게는 ‘행복한 도움닫기’였으리라.



성공적인 창업 위해 기술 습득과 경력 쌓아

㈜엔엑스테크놀로지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첫 번째 창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2006년 첫 창업 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경력 쌓기**에 돌입했다. 그 다음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대기업 제품(기지국·중계기 원격 관리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며 두 번째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에너지 고갈’이라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안으로 건물(공장·빌딩·매장·집 등)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용역개발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습득한 기술로 대기업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인데 대기업의 로고가 찍혀서 출시되니 제품 가치도 올라가더군요. 기술을 익힌 뒤 비즈니스 역량을 더 보완해 ㈜엔엑스테크놀로지를 창업하게 되었죠.

”

#Story2. 비즈니스 모델

(주)엔엑스테크놀로지의 사업 분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물인터넷 시스템(IoT Smart System)으로 스마트 홈과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Smart Energy Platform)으로 건물 내 혁신적 에너지관리, 실시간 수요반응, 에너지 거래 플랫폼이다.



지능형 기술로 건물 내 전력 자동 제어, 에너지 절감

건물(혹은 시설물)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분석으로 원격 조정하는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 낭비되는 에너지를 자동 제어한다. 전력 사용량 중 비중이 높은 기기(콘센트, 조명 스위치, 냉·난방 등)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건물 내 모든 전력 부하를 자동 제어하는 기술이다.

전력 관련 기기·장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연동, 에너지 사용 최적화와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다. (주)엔엑스테크놀로지는 현재 특허등록(2개)과 특허출원(15개)으로 독보적인 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이 사무실이나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출·퇴근 후 5분 뒤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제어해 차단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지능형 기술이 자동으로 패턴을 학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기술입니다.

#Story3. 성장 과정

(주)엔엑스테크놀로지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답게 2014년 2월 회사 설립 후 이듬해 6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기술 개발에 더 주력해 미래 에너지 기술을 이끌어나갈겠다는 남주현 대표의 의지가 담긴 행보다. 그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창조경제대상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뒤, 7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 올해 상반기만 매출 20~50억 원 규모

기술 개발에 주력한 덕분에 2017년 디지털이노베이션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일보)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품·서비스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남주현 대표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갈고 닦아 사업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수상을 통해 회사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점진적인 매출 상승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창업 첫째 1천만 원이었던 매출이, 2015년 5억, 2016년 8억, 2017년에는 10억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 확보된 매출만 20~50억 원 규모이며, 내년에는 200억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얼마 전 광주의 모 대학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교에 저희 시스템을 설치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익이 생기고, 2~3년 후에는 유지보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익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고, 서비스 확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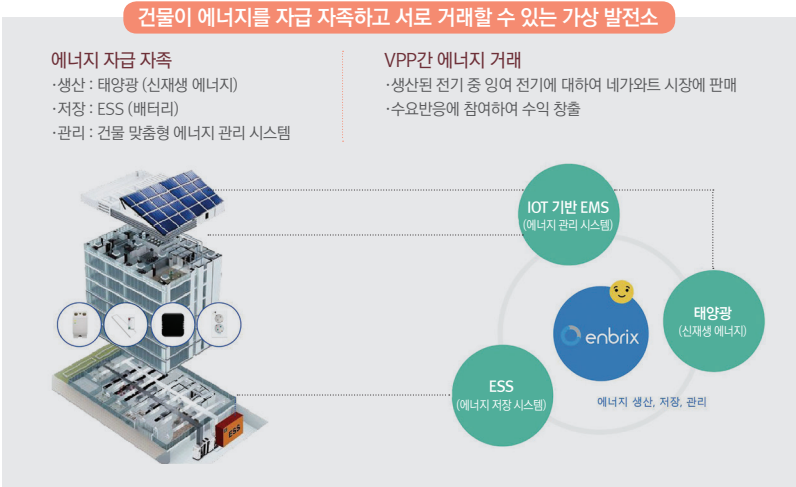
#Story4. 도약

남주현 대표는 2018년을 ‘성장 원년의 해’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력’에 있다. 대기업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은 건물 하나당 설치비가 매우 비싼 데다 시공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기술로 구축된 **(주)엔엑스테크놀로지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빠른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감 효과도 뛰어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감을 넘어 ‘에너지 생산’ 가능한 오프그리드 시스템

지난 7월에는 ‘인도 웨스트벵갈 주 정부와 에너지 효율화 및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로 태양광 에너지를 생성하는 오프그리드(Off-Grid)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에너지 절감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주)엔엑스 테크놀로지의 비전**이 실현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듯하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창업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창업을 원한다면 작게 시작해 시행착오를 줄여야합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한다면,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이게 왜 필요한지 생각한 다음 시작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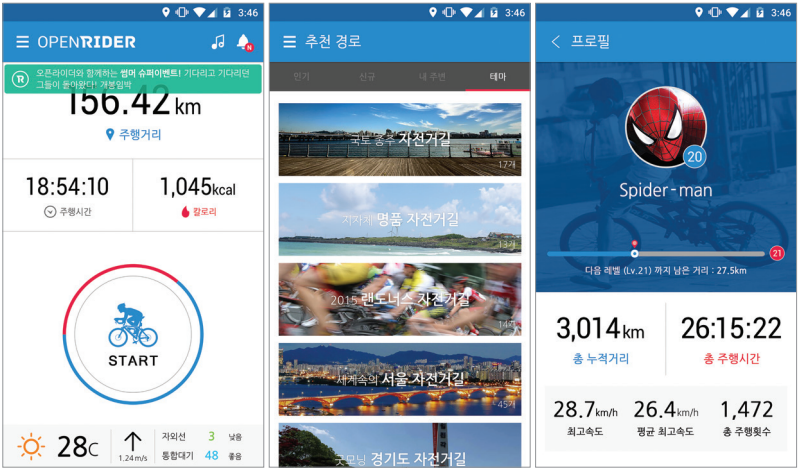
남주현 대표

CUFIT

‘오픈라이더’로
길 안내부터
속도계·주행기록
전국 랭킹까지!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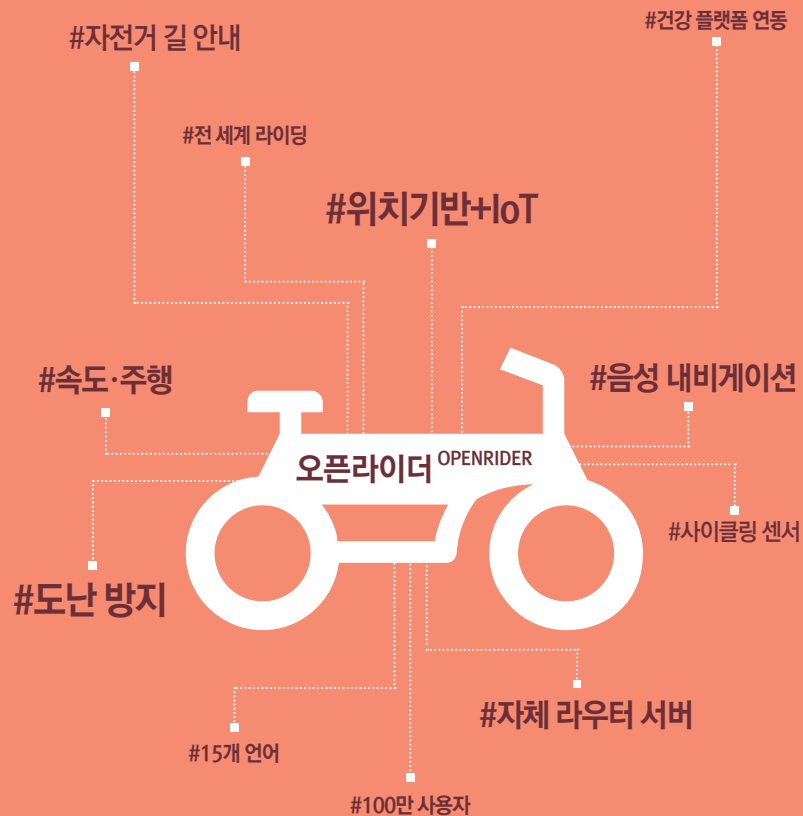
자전거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IoT 기반
전용 사이클링 센서 개발



(주)쿠팡

안전한 자전거 길 안내부터 속도, 주행기록, 랭킹, 자전거 대리점·매장이나 편의시설 검색, 주행 중 음성 내비게이션을 서비스한다. IoT 기반 사이클링 센서를 자체 개발, 앱과 연동시켜 속도계+케이던스, 도난 방지, 주행 기록, 멀티 통신이 가능하다.

회 사 명	(주)쿠팡	전화번호	02-6462-9817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22길 37 성수IT 종합센터 313호		
대표자명	김 민 영	홈페이지	www.cufit.net
설립 연도	2012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4명
			현재 6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기상청 기상예보,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 정보, 통계청 행정구역경계 공간정보,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국토교통부 우리가람, 서울특별시 자전거 편의시설 공간정보,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사고다발 지역정보, 한국수자원공사 자전거 종주인증센터, 각 지자체 공공자전거 현황 등 공공데이터로 자전거 라이딩 서비스 구축

#Story1. 창업

쿠핏의 첫 출발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전거를 즐겨 타던 김민영 대표와 창업 멤버들이 자전거 내비게이션 앱 ‘오픈라이더’를 개발해, 2013년 1월 최초 ‘시즌1’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미 앱을 만들어 사용자를 모아왔지만, 앱 하나만으로는 수익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3년 전부터 투자 중심의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이후 2015년 법인으로 전환해 ㈜쿠핏으로 비즈니스 다각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창업경진대회 참가하며 날씨와 대기오염 정보 서비스 업그레이드

㈜쿠핏 ‘오픈라이더’ 앱은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7월 시즌2, 2015년 9월 시즌3, 2016년 8월 시즌4까지 총 네 번에 걸쳐 메이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다. 이 중 시즌3에 도입된 날씨와 대기오염 정보 서비스는 날씨 앱 기능을 장착한 오픈라이더의 세 번째 업그레이드였다. 이 서비스로 2015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국 결선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으며, 건강 플랫폼과 연동한 IoT 사이클링 센서 개발의 시발점이 됐다.

“

㈜쿠핏은 자전거 내비게이션 앱 ‘오픈라이더’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혈압계와 연동해 ‘쿠핏 혈압다이얼리’도 서비스 중입니다. 위치기반 및 IoT 센서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향하며 거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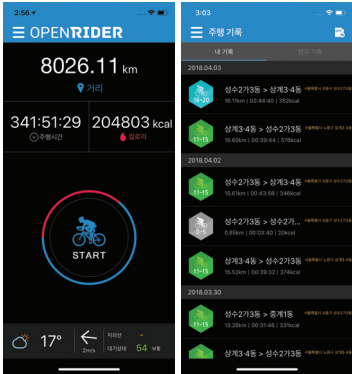
#Story2. 비즈니스 모델

㈜쿠팡 ‘오픈라이더’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원천기술로 탄생했다.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안전한 자전거 길 안내와 추천 경로, 최단 경로, 대체 경로 등 라이딩에 적합한 길을 추천한다. 자전거 속도계로 라이딩 속도를 조율할 수 있고, 라이딩 기록·관리와 전국 라이더 랭킹도 알 수 있다. 날씨와 기상예보, 기온, 풍향, 대기오염, 자외선 지수 등 최적의 날씨 정보와 자전거 용품 스토어 정보도 제공한다.

위치기반 기술과 IoT 센서, 건강 플랫폼 연동한 기술

첫째, **위치기반 기술**로 GPS, 전자지도 및 도로 데이터, 최단거리 검색 알고리즘, 구간별 속도 및 칼로리 소모량 계산 알고리즘 등을 구현했다. 둘째, **IoT 센서 연동**으로 블루투스·센서와 스마트워치, 심박센서·속도센서·케이던스(1분당 페달을 밟는 횟수) 센서를 연동해 서비스한다. 셋째, **건강 플랫폼 연동**(구글 피트니스, 삼성 S헬스, 애플 Health Kit), 넷째,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 다섯째, 빅데이터 분석 기술(지역 분석, 도로 이용률, 구간별 평균 속도, 연령/성별 회원 분석)이다.

“IoT 사이클링 센서는 속도계와 케이던스, 도난 방지(도난 위치 조회), 주행기록(자체 메모리 지원), BLE(저전력 블루투스)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1500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환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100만 명의 오픈라이더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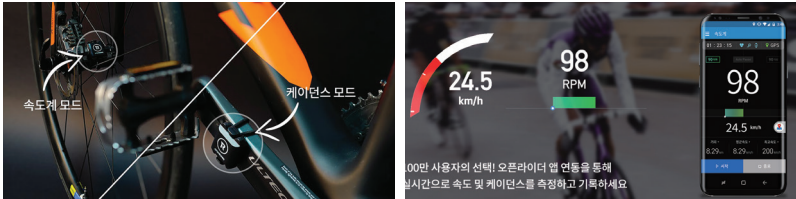


#Story3. 성장 과정

㈜쿠팡은 김민영 대표는 10년 전 통신사 LBS(위치정보 기반 길 안내) 서비스를 구축했던 팀원들과 분사해, 쿠팡을 설립했다. 기술력과 시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모회사의 스피노프(회사 분할) 방식으로 오픈라이더 서비스를 해왔다. 장장 2년 반 동안 모회사가 10억을 투자했고 기술개발과 R&D 지원으로 지속해서 성장해나가고 있다.

분야별 실력파 인재의 팀워크, 최소 인원으로 만들어낸 성과

오픈라이더 서비스를 시작한지 5년이 훌쩍 지났지만 창업 멤버에서 2명만 늘었다. 서비스 확장으로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해 영입하고, 분야별 **최소 인력만으로 오픈라이더 콘텐츠(소프트웨어)와 IoT 센서(하드웨어)를 모두 개발**한 것이다. 그야말로 ‘1인 100’ 수준의 능력 발휘였다. 덕분에 오픈라이더 누적 다운로드 80만, 누적 회원 81만명을 돌파(2018.7)했다. ‘자전거 내비게이션’ 키워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 애플 앱스토어 1위로 검색되고 있으며, 라이딩 기록 230만, 길 안내 870만을 기록하는 등, 자전거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픈라이더는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15개 현지 언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사이클링 센서는 표준 사이클링 프로파일에 맞춰 개발돼, 다른 사이클링 컴퓨터와 자유롭게 연동이 가능한 하드웨어죠.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Story4. 도약

(주)쿠팡은 자체 개발한 사이클링 센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우수한 자전거용품을 사고파는 오픈마켓도 운영 중이다. 마니아 회원 방식의 수익구조도 주목할 점이다. 오픈라이더 앱을 베이직 서비스(무료)와 마니아 서비스(유료화)로 구분해 수익을 창출하고 팝업·배너 광고 수익, 캠페인과 자전거 대회운영(참가 신청 및 사용자 결제 시스템)까지 아우르며 수익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자전거 특화한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선점할 준비 완료

이미 해외에는 자전거 앱의 양대 산맥인 스트라바와 엔도몬도 서비스가 있지만, (주)쿠팡은 ‘전기자전거’를 특화할 목표도 세웠다. 전기자전거 디바이스로 자유로운 동작·제어가 가능한 HMI(Human Machine Interface)가 올 하반기 개발 완료된다. 전기자전거 핸들에 장착되어 턴바이턴(길 안내 신호제)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LTE Cat.M1이 적용된 광대역망으로 전기자전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난방지 관제센터 솔루션을 구축, 글로벌 시장 선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창업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사람·돈·아이템입니다.

특히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CHAPTER. 2

재도전 이론

창업의

신(神)과 함께

01. 데이터킹 106 | 02. 투비엑스 116 | 03. 집토스 126

360° VR 기술로 가상 전시 관람부터 문화·공간·교육까지!

DATAKING

01

세계 최초로 VR 장비 없이
시공간 연결하는 영상기술 개발



데이터킹㈜

데이터킹㈜은 360° VR 기술로 국내·외 모든 전시를 풀 HD로 감상하는 K-VR museum(가상 전시 관람 플랫폼), 문화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VR로 가상공간 소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회 사 명	데이터킹㈜	전화번호	031-421-3677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 스마트콘텐츠센터 606호		
대표자명	박 선 규	홈페이지	www.360VRMuseum.com http://dataking.co.kr
설립 연도	2015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3명 현재 12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데이터킹(주)은 K-VR museum 서비스를 위해 공공누리 관련 데이터(특별테마전, 지역별 관광지, 지역별 문화재, 시대별 유물, 산업활용 3D 등)를 적극 활용. 전시·유물 정보를 바탕으로 VR 장비 없이 볼 수 있는 360° VR 영상 제공

#Story1. 창업

데이터킹(주)은 빅데이터 기반 영상분류 특허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기술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기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빅데이터 석사 출신의 박선규 대표는 창업 전 2014년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주말농장 폐쇄형 SNS 위크툽'으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지리적 위치기반 귀농을 위한 영농정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였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기점으로 창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여러 정부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화가 불가능했다. 대신 기술을 활용할 다른 창업 아이템으로 눈을 돌렸다.



360° VR 특허 기술로 창업에 날개 달다

2016년 첫 아이템이었던 지리적 위치기반 기술에 360° VR 영상재생 기술을 접목해 VR커뮤니티 플랫폼 '비디오맵'을 선보인 것이다. 누구나 쉽게 360° VR 영상을 지도에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나가면서 2016~2017년 VR 영상 관련 3개의 특허 기술을 등록했다.

“

2016년 말 세계 최초 360° VR 기반 커머스 플랫폼을,
2017년에는 360° VR 공간공유 오픈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 360° VR 콘텐츠를 구축하며,
박물관 가상 관람 서비스 'K-VR museum'을
중점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 중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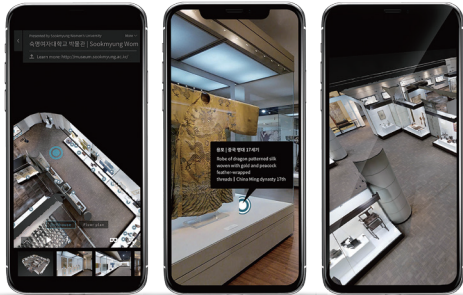
#Story2. 비즈니스 모델

특허 받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데이터킹㈜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다.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리며 가상 전시 관람 플랫폼(www.360VRmuseum.com)인 360° VR museum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문화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잇따라 선보였다. 이 중 ‘가상 전시 관람 플랫폼과 문화데이터 분석 솔루션’은 문화·교육 분야와 접목해 서비스 중이다

VR 장비 없이 가상 전시 관람하는 K-VR msueum

데이터킹㈜의 ‘360° VR 가상 전시 관람 플랫폼’은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 아카이빙 서비스로 국내외 모든 전시를 웹과 모바일에서 풀 HD 감상이 가능하다. 단순히 3D 영상이 아닌, VR 장비 없이도 볼 수 있는 360° VR 가상 전시 관람 서비스다. ‘360° VR 박물관 티켓’은 모든 지난 전시를 QR코드 스캔만으로 볼 수 있다. ‘문화데이터 아카이브’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저장하던 전시들을 모아 클라우드 기반의 360° VR로 제공한다.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공주, 춘천, 제주, 부여, 나주, 대구, 경주박물관 등 국내 최고 국립 박물관과 숙명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 삼육대학교 박물관 등 대학 박물관의 문화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 해왔다. 가상 전시 관람은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학교 프로그램에도 활용하고 있다. ”



#Story3. 성장 과정

데이터킹㈜의 창업 성장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술력’이다. 박선규 대표를 필두로 빅데이터 기반 360° VR 기술을 연이어 선보일 수 있었던 원천은 창업 이후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특허 등록된 기술은 총 4개로, 웹페이지에 있는 영상을 특징점 기술 기반으로 자동 추출하는 크롤러 엔진, 영상을 표현하는 대표 썸네일을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자동 추출, 영상 안에 있는 객체 정보를 따로 분리 추출하는 기술, VR 내 관심도 시선 추적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다.

기술 개발과 기술 제휴로 글로벌 경쟁력 구축

공신력 있는 인증에도 박차를 가했다. 벤처기업 등록을 시작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 ‘K-Global 300 인증’, 4차 산업 R&D 유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개발 성공판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받았다. 2016년에는 일본웹시스템, 인도 프렉시, 미국 메타포트와 기술 제휴를 맺고, 2017년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ISV(독립소프트웨어공급자) 파트너가 됐다. 또, VR 빅데이터 연구전담 부서 설립, 창업성장기술개발 선정(VR 빅데이터), 대학교 박물관 360° VR 콘텐츠 구축에 이어,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 360° VR 콘텐츠를 구축했다.

“ 지난 1년간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계약을 체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정식 코셀러(co-seller)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Azure)’를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죠. ”

#Story4. 도약

2018년 한 단계 진일보한 데이터킹㈜은 올해를 성장 원년의 해로 삼고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 분야는 K-VR museum과 문화데이터 아카이빙 서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인 Tips 해외진출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진출할 계획이다.

✚ 소외된 지역에 VR 장비 및 박물관 콘텐츠 제공

지난 6월 말 데이터킹㈜은 삼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스마트스쿨을 함께할 기술미디어 후원 업체로 선정됐다. 삼성이 소외지역의 학교, 양로원, 고아원에 VR 장비와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면, 데이터킹㈜은 이 장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한다. 웹과 모바일에서 360° VR로 볼 수 있지만, 구글 카드보드나 삼성오딧세이(HMD)와 같은 VR글래스로 더 확장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골판지를 조립해서 만든 구글 카드보드는 초등학교 문화&과학 융합 교육 콘텐츠로 활용 기대치가 높다.

또, 사건 정보를 돌려볼 수 있는 API 개발을 완료한 만큼, 이제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를 360° VR 입체영상으로 볼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듯 데이터킹㈜의 특허 기술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들의 눈부신 도약이 자꾸만 더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창업하기 가장 좋은 소스 중 하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다만, 한 개의 공공데이터만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모색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몇 가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서 쓴다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TOBIEX

‘모두의 여행’에 가면
축제·전통시장·
테마여행 정보가
한눈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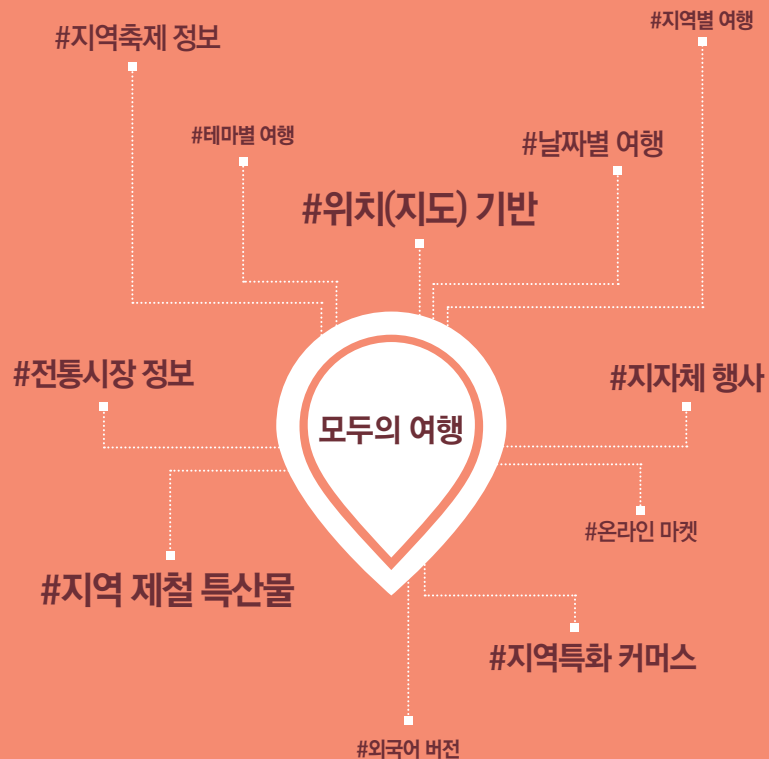
위치 기반 날짜별 테마여행 + 지역 특산물·농수산물
특화 커머스 구축



투비엑스

‘모두의 여행’은 날짜별·지역별 테마여행 정보를 지도와 달력 형태로 제공한다. 지역축제와 행사 + 전통시장(오일장, 상설장) + 그밖의 다양한 테마여행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관광정보 뿐 아니라 지역 특산품과 농수산물 온라인 마켓이 결합된 플랫폼이다.

회 사 명	투비엑스	전화번호	070-4866-2420
주 소	제주 제주시 용마로4길 5(용담삼동)		
대표자명	김 태 우	홈페이지	-
설립 연도	2013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1명 현재 3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한국관광공사(관광지·축제정보 등), 소상공인진흥공단(5일장·전통시장 야시장 등), 지역진흥재단·지역정보포털(지역 특산물·농수산물 등), 각 지자체(지자체 축제·행사정보 및 지역 특산물·농수산물 등의 공공데이터 활용. 이 외 문화유산(문화재정보·문화재사진정보, 유물정보, 민속대백과사전 등), 문화산업(문화행사, 행사 일정 등), 관광여행(축제, 테마여행, 관광정보(휴양지/·휴양림·캠프), 체험관광 등) 제공 및 문화포털 공연전시정보, 문화정보 활용

#Story1. 창업

평소 여행을 즐기던 투비엑스(TOBIE) 김태우 대표는 게스트하우스 정보를 제대로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다는데 주목해, 직접 앱을 만들기로 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사업화를 목표로 2013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앱 개발 부문에서 출품해 장려상(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창업과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볼 좋은 계기였다.** 게스트하우스 검색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BM 특허도 등록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 이뤘

그렇게 2014년 4월 창조기업을 설립하고, 대한민국 게스트하우스 검색 앱을 정식으로 선보였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2015년 12월 앱 누적 다운로드 10만회를 돌파하며, 고공 성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대형화된 모텔·호텔 숙박 전문 커머스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분야에도 관심을 보였고, 김 대표에게 사업인수를 제안했다. 결국 이미 해당 시장에서 대기업처럼 성장한 기업과의 경쟁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6년 12월 게스트하우스 앱을 매각, 새로운 창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 위치기반 지역 특화 여행정보 및 특산물 커머스 플랫폼 ‘모두의 여행’을 구상했다.**



“

이미 게스트하우스 앱을 통해 위치(지도)기반 지역정보 활용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템이었던 ‘모두의 여행’ 개발은 당연한 거였죠. 본질적으로 둘 다 지역특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을 활용하면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

#Story2. 비즈니스 모델

투비엑스가 올해 안에 선보일 ‘모두의 여행’은 이름처럼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이 총망라 되어 있다. **지역축제와 행사, 전국 전통시장(오일장, 상설 재래시장), 다양한 테마여행(박물관, 전** **사관, 동 · 식물원, 테마파크 · 공원, 고택 · 한옥마을, 성당 · 등대, 천연기념물, 자연휴양림/캠핑** **장 등)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
지역별 정보를 지도와 달력으로 쉽게 검색하는 플랫폼

‘모두의 여행’은 개인별 ‘맞춤 여행검색’이 가능하다. 나의 여행 일정에 맞게 원하는 **날짜와** **위치(지도) 기반으로 필요한 여행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준다.** 중·장년층 여행객들 에게도 쉬운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열리는 축제나 행사일정부터 내 위치 주변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는지, 혹은 오일장이 열 리는 시기인지, 아니면 인근에 주요 관광지가 있는지 등을 보여준다. 마치 인공지능형 여행 안내책자 같다. 또한, **단순 여행 정보 제공만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홍보 · 판매하는 커머스** **플랫폼 기능도 갖춘 예정이다.**

“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유통 사이트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위주로만 보여줘 다양한 특산물을 접할 수 없습니다. 또, 생산자(생산단체)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익 증가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서비스가 지역 특산품 커머스 플랫폼 ‘모두의 여행’이죠.

”



#Story3. 성장 과정

투비엑스의 아이템은 ‘지역 밀착, 지역 특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콘텐츠를 실 용적으로 담겠다는 목표로 앱 개발을 위해 창업과 동시에 가족 모두가 제주도로 이사했다. 단 순한 지역 정보 제공만으로는 ‘모두의 여행’이 추구하는 ‘여행이 많아진다’를 실현할 수 없기 때 문이었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정보에 생생한 지역 콘텐츠 투영

김태우 대표는 각 지자체 여행 정보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정보,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치(지도) 기반 여행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다만 **생생한 지역 콘텐츠를 서비스에 담겠다는 목표** **로, ‘모두의 여행’ 테스트 버전인 ‘오늘 제주’ 서비스를 MVP(최소기능제품)로 개발, 론칭해 3** **개월 여 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테스트 및 검증과정을 거쳐 전국 단위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모두의 여행’을 통해 ‘모두의 여행’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

저는 행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증권회사 등에서 기업투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개발자가 아니다보니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외주 개발을 하다 보면 제 뜻과 다른 지점도 있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테스트버전으로 ‘모두의 여행’의 성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

#Story4. 도약

‘모두의 여행’은 현재 지역축제·행사(지자체, 협회·단체, 민간업체 주최)는 수시로 콘텐츠를 등록하고, 전통시장은 5일장 298개, 지역 대표 상설시장 133개, 혼합형(상설장+5일장 병행) 269개 정보를 등록 완료했다. 이 외 테마여행은 체험 가능한 고택/서원54개, 템플스테이 129개, 과학관·미술관·박물관 350개, 문학관·미술마을·벽화마을 250개, 온천·스파·테마파크 75개, 동·식물원 80개, 숲·공원 250개, 휴양림 96개, 일출·일몰 명소 22개, 지역 특산물·농수산물 76개 등을 등록 완료했다. 여기에 계절별, 이슈별로 지역 특화 여행 테마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가할 예정이다.

특산품 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외국어 버전 개발 중

투비엑스는 지역축제와 특산물 홍보를 접목해, 직거래 할 수 있는 ‘특산품·농수산물 커머스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수수료와 유통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 특산품·농수산물 시장은 한껏 위축되어 있었지만 ‘모두의 여행’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는 낮추고 전문 판매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버전 개발’과 ‘지도 경로 제공’으로 국내·외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모두의 여행’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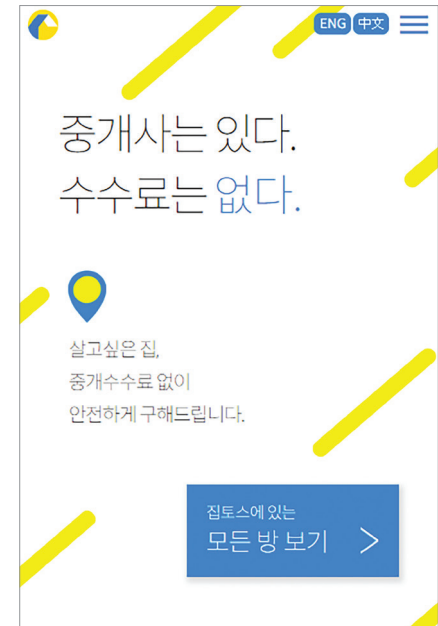
“창업을 준비할 때 공모전 수상 및 지원사업 선정 등
조그만 성과에 자만하여 선불리 인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크게 얻었다가, 비즈니스 모델이
곧바로 수익화가 되지 않으면 바로 어려움에 처하고
도태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지금까지 그렇지만,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며
창업 아이템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 정보부터 전·월세 직거래 플랫폼, 직영점 운영까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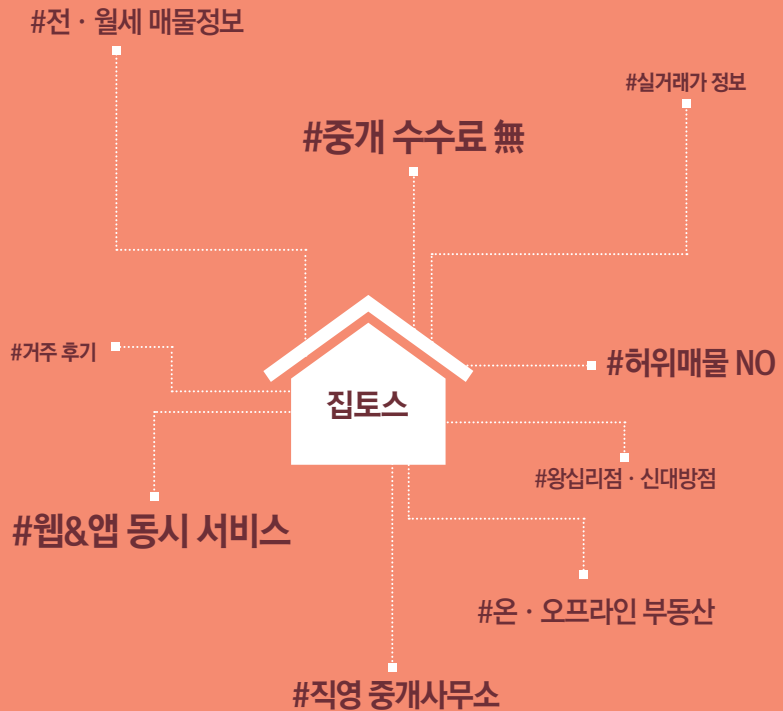
수수료 없는 기업형 온·오프라인 직영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집토스'



(주)집토스

집토스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개사는 있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전·월세 허위매물 없는 온라인상 전월세 매물정보를 구축해 웹·앱 동시에 서비스 중이며, 1~2인 가구가 집중된 왕십리·강남·관악·신대방·신촌에 집토스 직영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회 사 명	(주)집토스	전화번호	1666-8430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9길 5, 오렌지팜 서초센터 1층		
대표자명	이 재 윤	홈페이지	https://ziptoss.com
설립 연도	2016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3명
			현재 47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정보(행정안전부) 대법원, 토지 이용 규제시스템, 도로 조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 건물에 대한 정보 및 전·월세 및 건물 시세와 매매 실거래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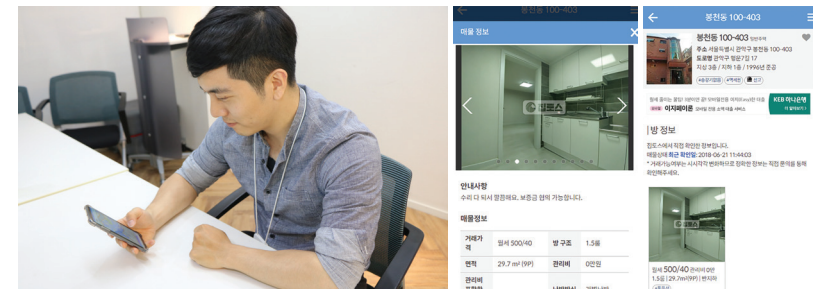
#Story1. 창업

서울대학교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활동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창업했다는 ㈜집토스 이재운 대표는, 이번이 두 번째 창업이다.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은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기획 부문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차지했다. 당시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걷는 보행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앱을 선보였지만, 기술 구현이 어려워 사업화가 어려웠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은 경험치에서부터 출발했다.



군 복무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친구 자취방 찾기에서 출발

군 복무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이재운 대표는 친구 자취방을 찾아주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친구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도 없으니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창업 멤버 셋이 모여 그해 7월 수수료 없는 온·오프라인 부동산 중개 ‘집토스’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응은 뜨거웠고 창업이 가시화되면서 2016년 1월 법인 설립 후 2017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

사람들이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업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어요. 국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99%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데, 수수료 부담과 부동산 업계에 대한 불신도 컸죠. 외국처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업형 중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집토스를 창업했습니다.

”

#Story2.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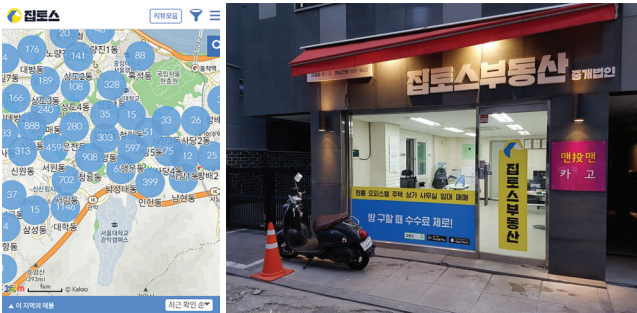
집토스는 전·월세 방을 찾는 1~2인 가구에게 중개 수수료 없이 방을 구해주는 부동산 서비스다. 자체 모바일 앱과 웹으로 동시 서비스 중이며, 오프라인 중개 서비스를 모두 직접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은 허위 매물 없는 **투명한 매물 정보 제공 및 살아본 사람이 직접 남긴 솔직한 거주후기**를 제공한다. 오프라인으로는 **지역별 직영 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세입자에게 무료 중개해준다.

+

앱으로 투명한 매물 정보 확인, 직영점에서 직접 거래

1~2인 가구가 집중된 왕십리·강남·관악·신대방·신촌에는 집토스의 지역별 직영 중개사무소가 있다. 직영점은 원룸과 투룸 중심의 소형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앱·웹을 통해 집토스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직영 중개사무소에서 방을 구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부동산 광고 앱들이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의 질이 낮아 집토스는 이에 전면 승부수를 내 걸었다.

“저희는 집주인한테서 직접 매물 소싱을 합니다.
정보의 질을 투명하게 만들고 고객이 온라인 문의를 하면
직영점으로 연락해 연결해줍니다. 방을 구하는 분들은 수수료가 없고,
매물을 내놓는 분들한테 수수료가 부과되는 운영방식입니다.



#Story3. 성장 과정

집토스 베타 서비스와 직영점 운영을 위한 준비는 직접 발품을 파는 것으로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의 연령층이 높은 편이다 보니, 부동산과 IT기술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중개 서비스가 생소하거나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시선도 차가웠다. 게다가 이름 없는 스타트업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라고 하니, 집주인들에게 매물을 소싱 하는 과정조차 만만치 않았다.

+

투명 매물 확보 위해 발로 뛴 청년들의 노력

집토스 매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인 가구가 집중된 관악구 지역의 집주인을 일일이 만나러 다녔다. 방을 보여 달라고 하면 문전박대당하기도 하고, 발품을 파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점차 신뢰가 쌓여 아는 집주인과 건물주가 생기고, 조금씩 입소문이 퍼져 나갔다. 그렇게 **1년간 2~3명 정도가 발품을 팔았고 2017년 직영점 중개법인을 시작으로 현재 왕십리·강남·관악·신대방·신촌점이 문을 열었다.**

“집토스는 직영점에서만 직접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허위나 과장 매물이 없습니다.
모든 매물은 집주인에게서 정보를 받아
실제 주소와 준공 연도 공개,
살아본 사람의 리뷰도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월 150건 이상 부동산 계약을 처리하고 있죠.

#Story4. 도약

㈜집토스는 보증 보험 가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였다. 사기 매물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의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때마침 올해 6월 ‘기업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집토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점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독점 플랫폼 지향

㈜집토스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혁신’ 이다. 부동산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 중개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미션으로, 전국 지점을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독점 플랫폼을 꿈꾼다. 현재 서울 전역 7개 지점 직영 중개사무소 외에, **서울 1~2인 가구 밀집 지역인 수유/회기 동부권과 아파트가 없는 밀집 지역인 강서/화곡, 그리고 건대와 송파 지역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을 넘어 전국을 아우를 집토스의 이유 있는 성장. 내년, 내후년의 도약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

“창업 전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면서
서비스를 만들어갈 때
결국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CHAPTER.3

아이디어를 사업화 이론 창업의 신(神)과 함께

01. 카탈로닉스 138 | 02. 마크인포 148 | 03. 유에스브이알 158



‘어반 스마트팜’으로 개인과 소형농장에서 직접 채소 키운다!

01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식물 환경조절 스마트 농업 플랫폼

automation all



DEMO ver.



- 지능화 조작 및 분석
- 작물을 최적 상태로 관리

카탈로닉스

카탈로닉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인공지능 스마트 팜 기술을 구현했다. ‘어반 스마트팜’은 다양한 식생지수를 수집해 어떤 조건에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지 분석해주는 자동 식물 환경조절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다.

회 사 명	카탈로닉스	전화번호	070-7966-1259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3 국토정보공사 5층		
대표자명	석 민	홈페이지	www.catalonix.com
설립 연도	2017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2명
			현재 5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작물 성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팜을 개발하기 위해 기상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온도·습도 등 환경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함. 또, 지하수, 지형, 식생정보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간·지형 정보 (GIS) 공공데이터 활용

#Story1. 창업

대학생 때부터 ‘늘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해 열망했다는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 공대와 법대를 졸업한 뒤 2016년 드론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지만, 열정만 앞선 나머지 창업에 대한 준비가 미숙했다고 털어놨다. **글로벌 서비스 가능성과 시장성,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준비, 시제품으로 구현할 기술력 확보**의 부재를 깨달은 것이다. 군 장교시절 만난 지금의 CTO와 함께 기술 기반 창업을 구상한 것도 이때부터다.



첫 창업의 실패 경험이 성공적인 재창업의 기반

석민 대표는 MBA를 거쳐 호주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공부할 때, 해외 자전거 여행 당시 사막에서 본 태양광 발전소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광학센서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2017년 **카탈로닉스 창업과 더불어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기환경 측정 모델링 모듈’로 아이디어 기획 부분 장려상(기술보증기금이사장상)을 받았다.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모색하던 중 농업 분야 중에서도 도시형 개인 특용작물 재배시장에 주목해 ‘어반 스마트팜’을 개발했다.

“

CTO와 함께 멀티스펙트럼 센서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미 오픈소스가 있었고, 창업 아이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특허기술로 만들면 다양한 사업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빅데이터 솔루션 서비스로 카탈로닉스를 재창업했죠.

”



#Story2. 비즈니스 모델

카탈로닉스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 만큼, 자체 개발한 광학센서를 활용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선보인 도시농업 솔루션 ‘어반 스마트팜’은 광학센서의 센싱을 활용한 개인 텃밭, 도시형 스마트 화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식생지수를 수집하고 어떤 조건에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지 클라우드에서 해석하는,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식물 성장 환경 자동화한 스마트팜

식물의 성장 환경 자동화 관리 플랫폼인 ‘어반 스마트팜’은 누구나 쉽게 도시농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허기술로 자동 재배환경(자동 타이머, LED 광량 · 광파 자동조절, 밑에서 미스트 처럼 물을 뿌려주는 에어로포닉스 시스템, 영양분과 PH 농도 자동조절 등)**을 구축한 것이다. 완제품이 출시되면 도시농업 개인 특용작물 재배자부터 귀농인, 원예농가, 유기농을 선호하는 개인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샐러드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비싼 채소를 중간유통 없이 원산지에서 사는 것처럼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원예농가나 노지농가, 도시농업 (예: 친환경 식물을 직접 재배해 공급하는 도시형 식물농장) 등에서도 활용 가능하죠.



#Story3. 성장 과정

석민 대표는 2016년도에 공동 창업 이후 시행착오를 겪은 뒤, 업계 동향이나 신기술의 흐름에 주목해 2017년 9월 카탈로닉스를 재창업했다. 이번에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스마트팜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전국을 돌며 자동화 농업 시설 등을 찾아다녔다. 또, 글로벌 사업화를 목표로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 현지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특허출원 및 보유기술로 창업 기반 다져

석민 대표와 CTO는 현지답사 후 각종 식생지수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에서 최적의 성장 조건을 정하고, 이를 실제 식물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덕분에 **특허출원(이미지 데이터 검출장치, 환경 데이터의 처리연산 구조) 및 보유기술(멀티 스펙트럴 광학센서, 빅데이터, 지능화 연산)**을 바탕으로 창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었다.

“직접 발품을 팔며 얻은 정보들은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카탈로닉스의 창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창업의 시작은 ‘시장 조사가 반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현재 5명의 인원에, 추가로 2명의 개발자를 영입해 제품 개발에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Story4. 도약

카탈로닉스는 2017년 창업 이후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에 이어, LX공사 공간정보대회 최우수상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전국 공공데이터 왕중왕전 기보이사장상, 제주 빅데이터 경진대회 최우수상(제주/카카오)을 받았다. 2018년에는 R&D센터 인증과 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 R&D에 이어, 코트라 지원으로 대만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플랫폼 이노벙스에 참여해 ‘어반 스마트팜’ 을 소개했다.



✦
글로벌 시장 진입 준비 완료

카탈로닉스는 지난 3월 개인·소형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 테스트를 완료했다. 향후 서비스를 고도화해 2019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자 프로그램 ‘startupbootcamp in rome’ foodtech 엑셀러레이팅에서 최종 18개 팀에 선정(2018년 7월 말), 마지막 투자 유치 관련 최종 평가단계를 밟고 있다. 가을에는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킵스타터’에도 솔루션을 소개해, 해외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할 준비를 끝마쳤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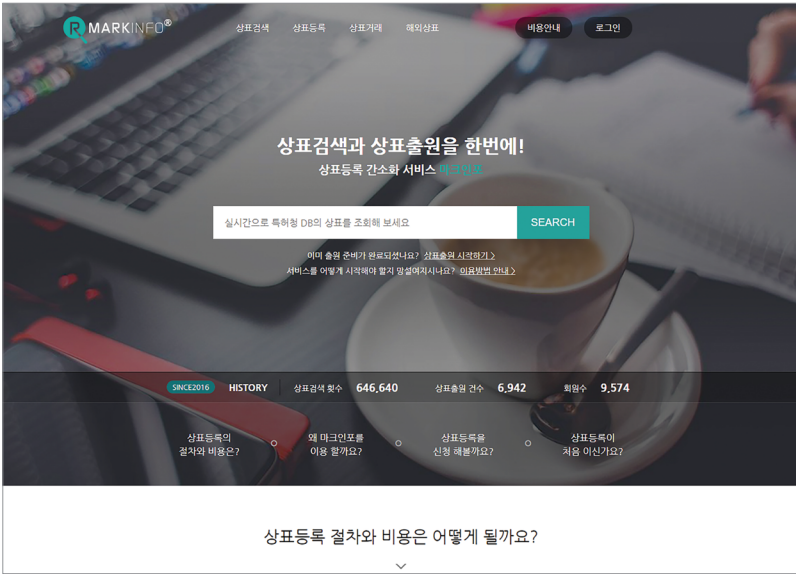
“창업이 ‘도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이겨내는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수입니다. 또, 기타 관공서 담당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관련 정보를 꾸준히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변리사 ‘마크인포’ 업종별 상표검색. 등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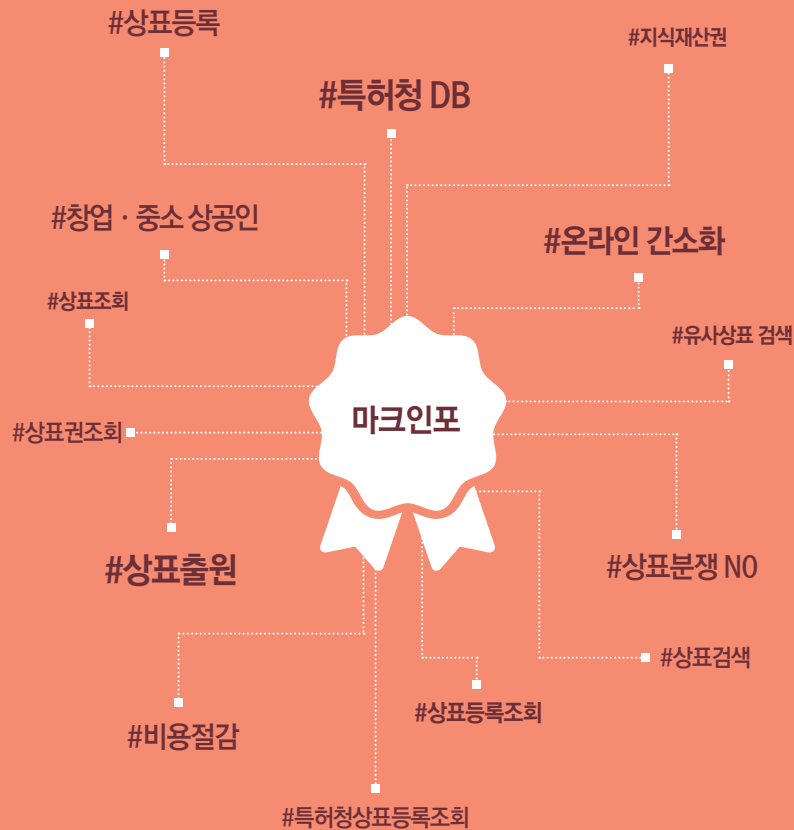
상표등록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앱과 웹 동시 구축



마크인포

마크인포는 변리사가 담당하는 특허·상표에 대한업무를 앱과 웹으로 구축한 '상표등록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다. 5단계 상표검색 매뉴얼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상표 검색부터 상표 출원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회 사 명	마크인포	전화번호	1599-3549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더시티세븐 시티세븐 티동 512호		
대표자명	문 경 혜	홈페이지	www.markinfo.co.kr
설립 연도	2014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1명 현재 9명(외주인원5명 포함)(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마크인포는 특허청DB 지원 및 API를 활용해 매년 특허청을 통해 출원되는 300만 건의 상표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표등록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구축. 특허청 심사 경향 빅데이터를 분석해 변리사 의견 대응 전문 서비스 제공

#Story1. 창업

2015년 창업 전 변리사 경력 10년 차에 접어들던 마크인포 문경혜 대표는 지역의 창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의 상표권 분쟁과 침해 사례를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를 대신해줄 변리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만나기도 어렵고 수수료도 부담스러워 업무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리사로서 느낀 일반인들의 고충과 더불어, 상표권도 부동산처럼 재산임에도 관련 거래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데 주목해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예비 창업자 위해 변리사가 만든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문경혜 대표는 온라인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를 구상하며 특허청 상표등록 DB와 공공 데이터에 주목했다. 변리사 업무를 뒤로하고 창업을 결심한 것이다.

꼼꼼한 시장조사와 발품을 판 덕분에 2014년 12월 **특허청 오픈 API**를 개발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와 동시에 **굳브**

랜즈(이후 '마크인포'로 사명 변경)를 설립했다. 이듬해 대구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의 투자 지원으로 솔루션을 개발, 마크인포 앱·웹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

예비 창업자들의 경우 상표등록만 해 놓아도 무단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단지 변리사로서 기존 상표 제도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창업자들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창업한 뒤 마크인포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개발했죠.

”

#Story2. 비즈니스 모델

2016년 1월 정식 서비스로 오픈한 ‘마크인포’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시간 10분이면 간편하게 상표등록을 신청(수수료 4만원)할 수 있다. **상표등록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상표등록까지 절차를 1:1 상표 전문가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해준다.**



업종별 상표검색부터 유사상표 검색, 상표등록·출원까지

마크인포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무료 상표검색 서비스다.** 무료 업종별 상표검색 서비스로 브랜드를 만들기 전 같은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간편 출원 서비스다.** 온라인으로 간소화해 모든 법적 절차와 권리범위가 최적화되어 출원되며, 상표권 종합 관리 솔루션과 연동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상표권 종합 관리 솔루션이다.** 상표등록의 모든 절차, 상표등록 이후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경고, 라이선스를 간편 조회, 관리받을 수 있다.

“

상표권 종합 관리 솔루션은 간편 출원 이용자에게 자동 연동되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세부 절차에는 브랜드 관리사가 매칭되어 창업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죠.

”



#Story3. 성장 과정

2013년 창업을 준비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해온 마크인포는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성장해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현재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회원 수 1.5만 명에 누적출원 건수 1만 건으로 예비창업자들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 것이다.



창업경진대회 참가를 계기로 서비스 확장 모색

마크인포 정식 서비스 후 문경혜 대표는 서비스 안정화와 비즈니스 모델 확장 가능성에 끊임없는 도전을 했다. 2016년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참가하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브랜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직접 진단하는 상표권 침해 진단(알파서치)’ 서비스로** 장려상(기보이사장상)을 받았다. 단순히 상표등록·출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경진대회 참가를 계기로 상표권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구상할 수 있었다.



“

자신의 비즈니스 희소성과 포지셔닝을 보호하려면 브랜드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창업경진대회가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

#Story4. 도약

현재 마크인포는 서비스 론칭 후 2년 연속 ‘특허청 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국가 공공데이터 정보활용 공모전’, 제2회 IP정보활용 서비스 대상(특허청장상), 스마트벤처창업 최우수 스타트업 기업 선정(중소기업청장)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저력을 과시해왔다.



해외 상표등록까지 마크인포 글로벌 서비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기획부문에 출품했던 ‘알파서치’는 2016 창업성장 기술 개발 과제로 선정돼, 2017년 개발을 완료했다. 딥러닝 기반 상표이미지 검색 프로그램 ‘알파서치’가 나날이 성장해가는 마크인포의 가속도 엔진인 셈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마크인포 글로벌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8월 베타버전 오픈)이다. 자체 개발한 최적화 검색솔루션에 기반한 해외 상표등록 전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 단계 진일보할 준비를 마쳤다. 마크인포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

“첫째,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서비스(상품)를 바라보는 것,
둘째 경쟁사보다 이용하기 쉽고
편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저마다 달라도
결국 이 두 가지가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360도 VR촬영·편집으로 자연환경부터 로드뷰·축제·체험까지 생생하게!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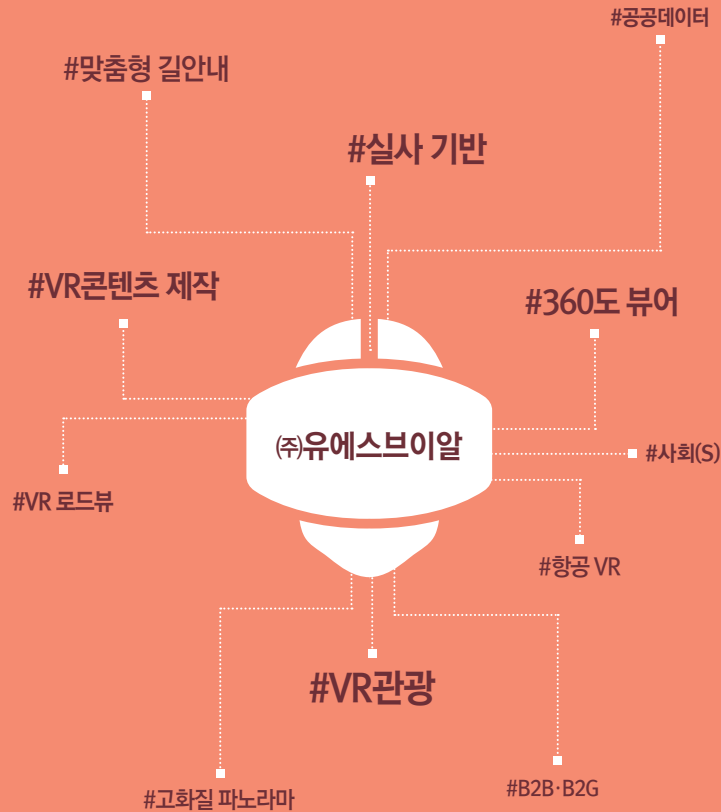
VR하드웨어와 IoT 기술 결합한
차별화된 고화질 VR 콘텐츠 서비스



(주)유에스브이알

(주)유에스브이알은 360도 VR촬영·편집 기술로 관광지를 실제 체험하는 것처럼 VR콘텐츠를 제공한다. 방문 전 주변 편의시설부터 환경(날씨, 바람, 수온), 교통(버스, 열차, 택시, 렌트), 맛집, 숙박 등 시설 정보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회 사 명	(주)유에스브이알	전화번호	070-7817-7890
주 소	본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8 HRC빌딩 8층 기술연구소: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05번길 7-1, 2층		
대표자명	박 진 성	홈페이지	www.usvr.co.kr
설립 연도	2017년	종사자수	창업당시 1명 현재 1명(2018년)



Tip.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했어요~

울산광역시 등산·숙박 정보, 울산광역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당번) 정보, 공공데이터 포털 울산광역시 BIS 정보, 코레일 KTX/ITX 역별 발착 통과표를 활용해 'VR 울산 관광서비스' 앱 시범적으로 개발

#Story1. 창업

(주)유에스브이알은 2017년 창업한 1인 기업이다. 박진성 대표는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2000년 웹디자인 공부를 시작했다. 2000년 입사했던 새 직장의 대표가 VR 시장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사진, 촬영, 편집, 웹디자인, VR 관련 기술을 습득해나갔다.



VR 기술 역량 쌓는 첫 창업, 그리고 두 번째 창업으로 VR 시장 진출



2013년에는 사진 스튜디오를 열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 VR 시장으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창업은 아니었지만, **고화질 사진**과 **360도 촬영기술**, 많은 양의 VR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실제로 유에스브이알 홈페이지(www.usvr.co.kr) 내 VR TOUR - VR일상에 들어가면 2003년부터 소소한 개인 일

상을 담은 VR콘텐츠가 담겨 있다. 등산, 여행, 캠핑 등 일상의 모든 경험치를 VR 기술로 구현해 제작하면서, VR 시장에 뛰어들 본격적인 준비를 끝마칠 수 있었다.

“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2017년 1인 기업을 창업, 그해 7~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지난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기획 부문에 출전해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이를 사업화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나갈 수 있었죠.

”

#Story2. 비즈니스 모델

(주)유에스브이알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화질 VR 콘텐츠 서비스다. **VR투어, VR로드뷰, 항공VR, 지상VR, 동영상VR, ZOOM VR, 일상VR 등 VR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3억 화소 이상 최대 25억 화소의 항공VR 기술을 적용해 VR관광 및 VR 길 안내 서비스, VR홍보 영상 등을 제공한다.



관광지부터 도시계획, 조감도, 시설, 자연환경까지 VR로 생생하게 구현

항공VR 기술은 각 지역의 안내부터 관광 안내, 조감도, 도시 계획 등에 활용된다. 개발 지역의 설계와 홍보 VR 콘텐츠, ICT(IT + 통신기술)를 결합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한다. 관광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역시 VR투어로 구현**, (주)유에스브이알만의 고화질 항공촬영과 편집을 통해 사용자에게 생생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도도 높다. 공공데이터를 VR에 접목해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시설안내 및 관광안내를 VR 콘텐츠**로 보여준다.

“ 2003년부터 콘텐츠를 쌓아왔기 때문에 VR로 다채롭게 구현할 소스가 많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 양질의 VR 영상제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촬영과 섬세한 편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진을 더 촘촘히 찍어 현장 느낌을 그대로 담아냈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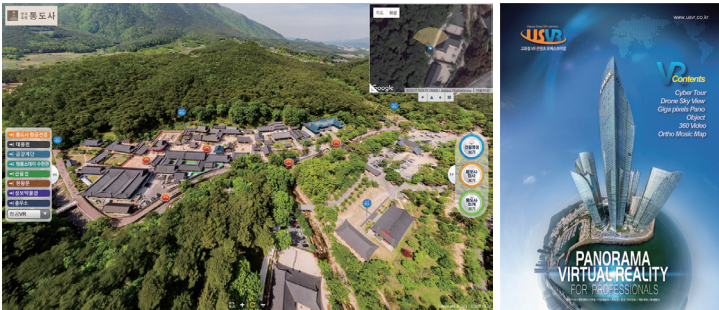
#Story3. 성장 과정

(주)유에스브이알은 창업 전부터 VR 기술과 장비,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2017년 창업과 동시에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 2017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아이디어 기획 부분) 최우수상과 드론쇼코리아 드론콘텐츠어워즈(사진부분) 대상 수상은, 회사의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자연스럽게 **B2B와 B2G 고객으로부터 지역·관광 안내 및 기업 홍보 VR제작 요청도 급증했고,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VR기술과 콘텐츠 활용범위 넓어 점진적 사업 확장

그동안 25억 화소 GIGA 항공VR 기술을 바탕으로 고화질 실사 기반 VR 촬영·제작은 물론, 관광·부동산·전시 등 맞춤형 VR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구글 스트리트뷰와 정사영상지도 촬영 제작,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선보인 롯데월드타워(항공 및 지상 VR 촬영) 안내 VR도** (주)유에스브이알이 제작했다.

“ 아직 세부적인 개발단계는 아니지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다채로운 V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 시설을 촬영해 생생한 숙박 VR을 보여주고 곧바로 예약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도 추진 중입니다. ”



#Story4. 도약

창업 2년차인 2018년에는 울산지역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고객층이 한층 더 넓어졌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리 항공비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정보 업데이트 주기가 느려 서울·수도권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할 정도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와 반대로 **(주)유에스브이알의 VR 콘텐츠 서비스 장점은 양질의 콘텐츠와 빠른 업데이트다.**



고화질에 업데이트 속도 빨라 VR 시장 선점 청신호

박진성 대표는 VR 영역에서 포털을 능가할 시장 경쟁력을 갖춘 ‘나만의 VR포털’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신 **1인 기업 특성을 살려 전국 지도 서비스 대신 강남, 신촌 등 소규모 지역별로 특화된 고화질 VR 지도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VR 시장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지만, 창업 2년 차에 접어든 ㈜유에스브이알의 사업 영역은 빠르게 확장하며 무서운 기세로 VR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다.



#에필로그 _ 창업을 앞둔 이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 돈이 될 것 같아
뛰어들기보다는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창업해야 합니다.
콘텐츠 사업은 1년 내내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준비되었을 때 창업의 꿈을 펼치기 바랍니다.”

2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작



1.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3년)

아이디어 기획 부문(8팀)

구 분	아이디어명	기업(팀) 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국무총리상)	Beeline	Beeline	출근길 경로를 설정하면 매일 출근시간에 날씨, 교통상황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상황 인지 기반 서비스	날씨정보(기상청), 교통 정보(국토부) 등
최우수상 (안전행정부 장관상)	학교운동장 예약 시스템	(주)정시 퇴근	전국(1만여개) 학교 운동장 예약 정보 공유 서비스	학교 운동장 위치정보 (국토부), 각 운동장 날짜·시간별 예약정보 (교육청) 등
우수상 (청년 위원장상)	주차 구역 나눠 쓰기 앱	어플리 메이커 (Appli maker)	방문객이 잠시 주차시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는 등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한 앱	지역별 거주자 우선 주차 정보, 공영주차장 정보(지자체) 등
장려상 (한국 정보화진흥원장상)	스마트OK	나들	편의점이나, 음식점, 금융권 등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솔루션 아이디어(신분증 분실 및 위조방지)	주민등록정보
	만족 하십니까	NFC	공공화장실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공공화장실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 화장실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	공공화장실 정보 (지자체)
	yummy yummy	절대미각	외국어로 식당 위치, 거리, 영업 시간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 실시간 식당 추천 앱	TourAPI2.0 (한국관광공사)
	포도티켓 - 밤 티켓	메모리 플러스	관광지, 공연장 등에서 나올 수 있는 포도티켓에 대중교통, 문화예술 공연, 맛집 정보 등을 담아 문화·생활 관련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아이디어	대중교통 (교통안전공단), 문화예술 공연(문화부), 맛집 정보(지자체) 등
장려상 (공간정보 산업진흥원장상)	We Find	위파인드	실종자, 반려동물, 분실물을 되찾도록 하는 솔루션 앱	분실·실종 데이터와 사용자 제보정보(경찰청 등)

앱 개발 부문(9팀)

구 분	앱 명	기업(팀) 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국무총리상)	테이크웨이더	대디 컴퍼니	쌍방향의 소셜 날씨 서비스로 숫자와 아이콘으로는 생생하게 알 수 없었던 바람세기, 눈 쌓임 상태 등 상세한 날씨 정보를 사진을 바탕으로 제공	날씨정보 (기상청)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화해	에스유디	성분 데이터, 성분별 특성정보, 제품 전성분 정보를 분석하고 안전도, 피부타입별 성분, 기능성 성분 등 화장품 종합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앱	화장품 전성분 정보(식약처)
우수상 (중소 기업청장상)	서울 데이트팝	텐핑거스	지역별, 테마별 데이트코스를 안내	TourAPI Guide (한국관광공사)
특별상 (네이버 대표상)	딩동이와 악기놀이	(주)리데	동요 선곡, 초등 음악 교과 내용 및 난이도, 유아 음악활동에 관한 논문 등을 분석해 유아 및 아동 (3세~13세)의 지적, 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작곡놀이, 동요감상을 통해 아동들의 창의력을 높여주고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에듀테인먼트	논문DB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등)
장려상 (공간정보 산업진흥원장상)	게스트 하우스	투비엑스 (To Be Expert!)	전국 게스트하우스의 위치 및 예약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역별 관광지 등을 소개	TourAPI2.0 (한국관광공사)
	아이프티	바오미르	실시간 위치 정보와 GPS 위치정보 기술을 NFC 기능이 들어있는 미아방지 팔찌와 결합하여 미아 방지 및 미아 찾기에 사용	위치정보 (국토부)
장려상 (창업진흥원장상)	나누다 (NA:NU: DA)	Triple S	봉사활동 전에 봉사자에게 필요한 봉사 교육 정보와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봉사 정보를 제공하여 주변에 필요한 봉사를 제안하고 칭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봉사활동 종합정보 서비스	봉사활동정보 (복지부, 지자체 등)
	까미르의 문양탐험, 마미르의 설화탐험	이모션 북스	전통문양의 생성과정과 의미를 상상력과 이야기로 엮어 전통문화에 대해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대상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양 이미지 (한국문화 정보원)
	서울 스템프투어	오라클 환경 디자인	서울의 명소에 대한 정보와 명소 주변의 행사, 축제, 공연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방문한 뒤에는 디지털스템프를 받음으로써 방문동기 제공 및 방문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TourAPI2.0 (한국관광공사)

2.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4년)

아이디어 기획 부문(10팀)

구 분	아이디어명	기업(팀) 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센시오	CRC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걷는 보행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서비스	교통사고정보(경찰청), 지도정보(국토부) 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주말농장 폐쇄형 SNS 위크톡	위크톡	지리적 위치기반으로 본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현황과 토지별 평균생산량 농지은행 거래시세를 확인하여 주말농장 메신저 서비스	농지실거래가정보 (농림부), 농지위치 및 공간정보 (국토부) 등
우수상 (행정자치부 장관상)	푸드트럭 정보 제공 서비스, 야미트럭	익스팩토리 (Geeks factory)	푸드트럭DB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푸드트럭 사업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위치정보(국토부) 등
우수상 (청년 위원장상)	처방약 토탈 검색 서비스	고고팜 (GoGo Pharm)	약국의 보유약 정보를 활용,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처방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 검색 서비스	의약품바코드데이터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약국정보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별상 (네이버 대표상)	잠깐! 보증수리를 확인하셨나요?	I&G	자동차 정비이력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차의 예방정비와 품질보증(보증수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비이력정보 (국토부) 등
장려상 (한국정보화 진흥원장상)	4th-Life	4th-Life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요양병원 검색, 비교 서비스, 자체적으로 이용자 리뷰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	요양병원정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공공(公共) 메시지 팜(PUM)	PUM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신저 서비스	공공시설물 정보(행자부)
	웁은' 서비스	웁은	바른 식단과 좋은 성분의 먹거리를 값싸게 섭취하여 Well-Being Life를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식단정보 및 가격정보(식약처) 등

구 분	아이디어명	기업(팀) 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장려상 (공간정보 산업진흥 원장상)	길 따라 역사 여행	보이:Da	모바일 및 웹의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다차원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역사 여행 가이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문화유적 정보(문화부) 등
	빅데이터 기반 옥외광고 효과측정 서비스	(주)리치 슬라이드	공간정보, 인구정보, 시설물현황, 교통량, 유동인구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중첩시켜 옥외광고 효과의 측정지표 제공 서비스	공간정보, 유동인구정보 (국토부)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10팀)

구 분	제품·서비스명	기업(팀) 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레드테이블	(주)레드 테이블	외래 관광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다국어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	Tour API (한국관광공사), 상권분석 정보 (서울시) 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클립머니	(주)텐큐브	업체정보, 소비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여 지출 패턴분석 및 효율적인 소비가이드 제시 서비스	소비자물가(통계청), 주유소 유가정보 (한국석유공사) 등
우수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티카	맥거핀	여행지 정보 제공 및 목적지를 공유하여 카풀 이용 및 예약 서비스	Tour API (한국관광공사) 등
우수상 (중소기업 청장상)	아키드로우 (ARCHI DRAW)	(주)아키 드로우	영상처리기반 거리 측정장치를 통한 지적측량 서비스, 고지측량서비스 등 공간 정보 부가 가치 구현 서비스	GIS지도정보 (국토부) 등

구 분	제품·서비스명	기업(팀) 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특별상 (다음소프트 대표상)	이지고 (EasyGo)	KOMMA (콤마)	대중교통 및 보행자용 관광 최적경로 제공을 통해 경유·목적지 관광안내 서비스	Tour API(한국관광공사), 보행자 DB(서울시) 등
장려상 (창업진흥원장상)	썸리스트	(주)어떤 사람들	도서정보를 활용하여 누구나 필요한 책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주는 도서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서비스	디브리리 OPEN API(국립중앙도서관) 등
	Nu-pad	(주)브로 멜리아드	식품별, 조리 상태별, 영양성분 DB를 활용하여 식이섭취량을 자가 수치화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 및 플랫폼서비스	국가 표준 식품성분 정보(국립농업과학원) 등
장려상 (창업진흥원장상)	후즈굿	지속가능 발전소 주식회사	공공데이터 기반 기업의 사회책임활동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착한 기업’을 찾아주는 서비스 및 솔루션 서비스	기업별 환경정보·화학물질 배출량정보(환경부) 등
장려상 (공간 정보산업진흥원장상)	앱탭	와이지 서비스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공지사항 전송 및 생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 서비스	지하철정보서비스, 전국 약국정보 및 병원정보(국토부) 등
	소중한 생명 지키미	더푸른 내일	위험지역내 활동 대상자의 유사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지원하는 안전관리서비스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 (국토부) 등

3. 제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5년)

아이디어 기획 부문(5개팀)

구분	아이디어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파밍	파밍	영농일지 기록 시, 날씨, 병해충, 농약자재 정보를 연동하여 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를 모바일 기반으로 작성할수 있는 앱 서비스	국가농작물 품목별 병해충 도감정보서비스, 농약정보, 품질인증현황 (농림부) 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힐링로드 ‘자연생태공원’	아메리카노	전국 자연생태공원 정보를 제공하는 앱 서비스	전국 숲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산림청), 전국자연 생태공원정보(환경부) 등
우수상 (경제 부총리상)	하이헬퍼	하이헬퍼	워킹맘을 위한 지역 위치기반 기술 적용으로 맞춤형 돌보미 연계서비스 제공	지도정보, 복지시설현황,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현황(국토지리정보원, 복지부)
장려상 (공공데이터 전략위원장상)	방방곳곳	UNIBA	산촌 생태마을 체험과 자전거 및 캠핑 여행객 니즈를 연계한 산촌체험 서비스 예약 앱 개발	자전거도로망(행자부), 임도망 및 산촌생태마을 (한국임업진흥원), 캠핑장 위치정보 (지자체) 등
	스파인서울 (SPA IN SEOUL)	스파인 서울	서울시내 목욕탕 및 찜질방의 위치, 시설, 가격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앱	각 구별 목욕장업 데이터(서울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5개팀)

구분	제품·서비스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스마트 팔레트	(주)구니스	종이와 물감대신 유명 작가들의 명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색칠하며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 진흥원, 박물관문화재단,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DB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오픈라이더	(주)쿠팡	자전거 라이딩 시, 필요한 날씨정보, 이용자의 위도·경도 정보를 행정구역으로 변환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자전거 내비게이션 앱	기상청, 한국환경공단, 통계청, 국토부 DB 등

구분	제품·서비스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우수상 (경제부총리상)	앞집(APTzib)	앞집	‘앞집맨의 발품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오프라인에서 앞집맨이 달려가 대출, 세무, 이사견적 등 종합상담을 무료로 진행한 후 후보와 견적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	부동산정보 통합포털(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DB(한국감정원), 특허·실용신안 등록정보 및 Open API(특허청)
장려상 (공공데이터 전략위원장상)	텍스트 마이닝	정철우	특허정보 검색 시, 다양한 연관 키워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해당 연관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검색엔진 ‘특허 빅데이터 자동화 검색 서비스’개발	특허·실용신안 등록정보, Open API(특허청)등
	피싱스타	파이브스타 게임즈	기상정보, 어종 및 해양정보를 접목한 모바일 3D 리얼 낚시 게임 서비스	기상정보(기상청), 해양정보(해수부)

4. 제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6년)

아이디어 기획 부문(5팀)

구 분	아이디어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닥터 게이트	닥터 게이트	의사에게 진단 및 처방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 방법 제공 서비스	진료정보, 의약품정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마이핏 (myFit)	Painkiller	소비자 신체치수와 브랜드별 의류 매칭을 통한 최적 의류 사이즈 추천 솔루션	한국인 신체지수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상 (전략위원장상)	썩 (SSOG)	스마일 배너 시스템	전국 축제 및 행사 정보 제공 웹/앱 서비스	문화관광 정보(문체부), 식품건강정보 (식약처) 등
장려상 (기보이사장상)	Where, There	WHY-FI	서울시 공공 WI-Fi 밀집도 분석을 통한 추가 공공 WI-Fi 수요 지역 선정	공공 WI-Fi 위치 정보, 연도별 유동인구 정보(서울시) 등
	알파 서치	굳브랜즈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브랜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직접 진단하는 상표권 침해 진단 시스템	상표DB(특허청), 인허가 DB(행자부)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5팀)

구 분	제품·서비스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와그(WAUG) 투어 & 액티비티 (앱/웹)	(주)와그 트래블	아시아 지역 투어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예약 및 이용 플랫폼	TourAPI (한국관광공사) 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루가(LUGA) 등산앱	(주)루가 아웃도어	등산객에게 산행 지도와 코스 정보 제공 서비스	등산로(산림청) 탐방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우수상 (전략위원장상)	소프트벤스 (웹)	(주)소프트 벤스	건물에너지 온라인 모니터링·진단 플랫폼으로 실시간 에너지 소비 현황, 월별 리포트, 용도별 사용량 예측 등 서비스 제공	건축물인허가정보, 건물에너지정보 (국토부) 등

구 분	제품·서비스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장려상 (신보이사장상)	햇초고 (앱/웹)	햇초고	해외여행자를위한 스마트 안전서비스로, GPS기반 맞춤형 현지 날씨, 시간, 국가별 위험 유형 및 숙소 주변 위험 상황 등 정보 제공 서비스	국가·도시위험정보 (외교부) 등
	제너럴 바이크(제품)	(주)제너럴 바이크	체형별 자전거 차체길이, 안장 높낮이 등 조절 가능 자전거	색채표준정보, 인체치수 (국가기술표준원) 등

5. 제5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17년)

아이디어 기획 부문(5팀)

구분	아이디어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오션플러스	오션 플러스	항만 현장근로자를 위한 선박 작업 정보 통합 플랫폼	선박입출항 정보(해수부) 등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VR 관광 서비스	유에스 브이알	VR을 이용해 맛집, 교통 등 관광 지역 정보 전달	교통정보(국토부), 행사정보(지자체), 기상정보(기상청), 병원(복지부), 체험학습, 공연·축제, 숙박, 맛집 정보(문체부) 등
우수상 (전략위원장상)	All-in-One 공유 주차앱	MPARK	IoT 기능을 접목한 무인주차 관리 및 공유주차 앱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현황 정보(지자체)
장려상 (행안부장관상)	전기차 충전 자동예약 시스템	(주)오픈 노트	효율적인 충전소 운용을 위한 스마트한 충전 예약관리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 정보(한국전력공사, 환경부, 지자체)
장려상 (기보이사장상)	대기 환경 측정 모델링 모듈	카탈로 닉스	국지정밀 대기질 관측을 위한 대기 환경 측정 모델링	기상·기후 정보(기상청), 재난정보(행안부) 등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5팀)

구분	제품·서비스명	기업(팀)명	주요 내용	활용 공공데이터
대상 (대통령상)	대한민국 기계 산업 온라인 플랫폼	코머신	전국 산업단지 내 기계 업체 온라인 플랫폼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및 통계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제노(Zeno)	엔엑스 테크놀로지	IoT 융합형 전력 절감 에너지 플랫폼 시스템	전력정보(한국전력공사), 기상특보정보(기상청), 재난안전정보(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정보 등
우수상 (전략위원장상)	포인핸드	포인핸드	유기·실종 동물 관련 정보 제공 앱(APP) 서비스	유기동물 정보(지자체) 등
장려상 (행안부장관상)	필더포스 (Feel TheForce)	(주)알이 에이치	실제 지형 지도에 기반한 실시간 모바일 3D 대전 액션 게임	공간정보(국토부)
장려상 (기보이사장상)	제주야	리반	QR코드를 이용한 제주도내 포인트 적립 및 고객관리 서비스	일반·휴게음식점 현황 정보(제주시), 스마트관광서비스 플랫폼 비콘 정보(제주도)

데이터 창업의 신(神)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5년의
이야기

인 쇄 일 | 2018년 11월

발 행 일 | 2018년 11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발 행 인 | 김부겸, 문용식

기획·편집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팀 이동철 팀장,
이호택 선임연구원, 장불이 연구원

참여 집필 | 피옥희 작가

주 소 | 대구본원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41068)

제주글로벌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63568)

전 화 | 대구본원 : 053-230-1114 제주글로벌센터 : 064-909-3114
